

HUFS

Cover Story

한국외대
제45차 모의유엔총회

Special Theme

숫자로 증명하는 HUFS,
다시 준비하는 100년 외대의 꿈

HUFS Topic

양인집 어니컴(주) 회장,
33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취임

HUFS Inside

우리 대학을 이끌어 나갈
인재 발굴을 위해



**THE 45TH
HUF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세계와 바로 연결되는 대학, HUFS

뉴욕에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17만 외대 동문의 글로벌 네트워크 파워와
글로벌 융복합 교육이 만나 더 높이, 더 멀리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미래형 인재를 키웁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lobal HUFS 2021 AUTUMN Vol. 112

숫자로 증명하는 HUFS,
다시 준비하는 100년 외대의 꿈

SPECIAL THEME

- 02 **Cover Story** 한국외대 제45차 모의유엔총회
- 04 **Special Theme** 숫자로 증명하는 HUFS, 다시 준비하는 100년 외대의 꿈
- 06 **Theme Interview** 100년 외대를 향한 정진: 8년의 도전과 기록 김인철 총장
- 12 **HUFS Interview** 처음, 용기가 필요한 순간 양인집 33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어니컴(주) 회장·일본어 76
더 살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 안승남 구리시장·경제 85 / 조광한 남양주시장·중국어 81
콘텐츠로 승부하다·한국수자원공사 주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천수성팀 김은혜·정주안·최민영 환경학과 / 최은경 영미관통상통번역 전공(환경학 이중전공)
- 18 **HUFS Inside** 우리 대학을 이끌어 나갈 인재 발굴을 위해
양재완 입학처장 / 김유진 입학처 입학사정관 / 박가은 입학처 조교·HUFStar(홀스타)
- 22 **Global Memoirs** 우리 대학 외국인 교환학생은 우리가 책임져요! 황유림 국제학생회(ISO) 회장·EICC학과 20
- 24 **I am HUFS** 한국외대를 세계와 공유하는 또 하나의 방법
윌리엄 스튜어트(William H. Stewart) 국제입학관리팀 / 김보영 국제교류팀
- 26 **Global Issue** 청년 스타트업에 눈을 돌려야 할 때 임정욱 TBT 대표이사·경영 89

HUFS NEWS

- 30 **HUFS Topics** 양인집 어니컴(주) 회장, 33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취임
부·울·경 지역 'ALL-IN-ONE 권역별 설명회'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미국 럿거스대(뉴저지주립대) 로스쿨과 MOU 체결
산업경영공학과 황기택 학생, 제56회 발명의 날 발명유공자 선정
- 34 **HUFS Today**
- 37 **HUFS Academies**
- 43 **HUFS Professors**
- 44 **HUFS Institutes**
- 46 **HUFS Books**
- 48 **CUFS News**

ALUMNI & DONATION

- 50 **HUFS Alumni**
- 53 **HUFS Donation**

한국외대 제45차 모의유엔총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량 안보에 대응하다

지난 8월 28일(토) 서울 코엑스(COEX) 오디토리움에서 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 (HUF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HIMUN)의 '제45차 모의유엔총회'가 개최됐다. 올해 모의유엔총회는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사상 최초로 비대면 온택트(Ontrack) 총회로 열린 제44차 총회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이라는 의제로 진행됐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량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뜻깊은 학술의 장이었다.

우리 대학 모의국제연합은 1958년 창설돼 올해 63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最初), 최고(最古)의 범대학적 외국어 학술 단체다. UN의 기본 이념인 '국제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한 자유, 평등, 박애'를 바탕으로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젊은이들의 학술의 장으로 널리 알려졌다.

숫자로 증명하는 HUFS, 다시 준비하는 100년 외대의 꿈

코로나19로 맞게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외대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각층에서 노력해왔다. 그중 숫자로 증명한 우리 대학의 가능성과 경쟁력은 크고 강한 100년 외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2020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8명 배출로 국내 2위

우리 대학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29일(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0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51명 중 8명(일반외교 6명, 지역외교(중남미, 러시아·CIS) 2명)을 배출한 것이다. 일반외교 분야는 1,166명이 응시해 제1차 시험(공직적격성평가, 선택형), 제2차 시험(전문과목 평가, 논문형), 제3차 시험(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47명을 선발했는데, 우리 대학에서 6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지역외교 분야는 68명이 응시해 제1차 시험(공직적격성평가, 선택형), 제2차 시험(서류 전형), 제3차 시험(면접)을 거쳐 4명이 최종 합격했는데, 우리 대학에서 2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5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5위

우리 대학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5위를 기록하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널리 알렸다. 지난 4월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발표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우리 대학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5위(로스쿨 10기 입학 인원 기준)에 올랐다. 로스쿨 10기 입학생 51명 중 3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합격률 60.78%를 기록했다. 회차별 합격률로는 지난해 합격률(48.7%)과 비교해 12.8%p의 큰 상승 곡선을 그렸다. 우리 대학 로스쿨 교육 커리큘럼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480

정부 사업 수주 금액 3년간 약 480억원

우리 대학이 정부로부터 수주한 사업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480억원에 육박한다. 우리 대학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인문한국지원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BK21플러스사업,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KIEP 국제지역전문가양성과정,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KOICA 석사학위연수 연수기관, 한국-스페인포럼사업, KF 글로벌 e-스쿨사업, 글로벌취업전문가과정,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대학일자리센터사업, 경기꿈의대학, 대학일자리센터사업, 경기도 취업브리지,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SW중심대학 등 19개의 정부 사업을 수주했다.

8

QS 세계 대학 평가 3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8위

우리 대학을 '글로벌 외대'라 하는데, 이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대학이 지향해온 글로벌 교육에서의 독보적 전통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됐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6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공개한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8위를 차지했다. 졸업생 평판도에서 전년 대비 92계단 상승했으며, 외국인 교원 비율 국내 1위, 외국인 학생 비율 국내 4위 등 국제화 역량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학문 주제별 평가에서는 2019년만 해도 전체 48개 학문 주제 중 5개 주제가 순위권에 등재됐다.

TOWARD HUFS FIRST 100 YEARS



김인철 총장

100년 외대를 향한 정진: 8년의 도전과 기록

2014년 2월 한국외대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인철 총장은 연임에 성공해 8년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2월 임기가 종료되는 그는 총장직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오늘도 바빠 움직이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100년 외대를 향한 김인철 총장의 8년의 도전을 되짚어봤다.

도전으로 점철된 8년의 나날

지난 8년 동안 우리 대학을 이끈 김인철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 마무리된다. 연임 총장으로 8년을 지내왔기에 소회가 더욱 남다를 것 같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8년 가운데 한국외대 총장 직분에 더해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대학이 13년째 등록금을 동결당하는 등 재정난 속에서 우리 대학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강한 100년 외대를 향한 우리들의 합심 노력은 온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총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다만, 총장 능력의 부족함과 코로나19 등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외대 구성원 여러분의 양해와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인철 총장의 지난 8년은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덕분에 우리 대학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며 미래형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는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 김인철 총장은 “한국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주도한 17만 동문을 배출한 명문사학”이라면서 “이공계 중심 선두권 대학과 어깨를 겨루며 인문학 전통을 가진 융복합 대학으로서 ‘혁신’, ‘공유’, ‘교류’를 선도하는 면모를 갖추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회를 2016년에 결성해 3차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경외대, 동경외대와 함께 아시아 삼각 연대를 구축하고,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수한 고교 졸업자 중 현지 대사의 추천을 받은 인재를 우리 대학 학부생으로 영입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IDS(International Diplomatic Scholarship) 프로그램에 현재 42개국 133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류 학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출신 국가의 다양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을 인정받아 세계 대학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WURI 랭킹에서도 세계 100대 대학에 속하며 순위상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학이 간직한 고유성과 향후 나아갈 혁신성을 동시에 살리는 사업을 실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통번역대학원, 통번역센터와 산관학 협동형 교육 강화 모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돼 AI 다국어 통번역기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개관, 송도캠퍼스 개발 사업 등 기억에 남아

우리 대학은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개관, 글로벌캠퍼스 도서관·박물관 건립 시동, 융합인재대학 신설, 송도캠퍼스 개발 등 최근까지 이룬 성과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인철 총장은 양 캠퍼스 도서관 이야기부터 꺼냈다.

“리모델링한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했지만 코로나19로 건물의 모든 장소를 개방할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학생들이 학습하고,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곳, 학생간 토론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또 글로벌캠퍼스는 스마트도서관과 세계박물관을 신증축하기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송도캠퍼스 개발 사업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전문 교육기관 선정 등에 관해 덧붙였다.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경쟁력 확보의 첫 걸음으로 송도캠퍼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해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산학 협력 혁신 캠퍼스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과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이전, 외국인 중심 글로벌자유학부 신설, 경영대학원 글로벌 지역경영학과 신설 등 새로운 학제를 송도캠퍼스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제정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선정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전문 교육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국가전략적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의 언어·문화 교육을 담당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인철 총장은 학생들의 성적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털어놓았다.

“총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학기말 시험을 치른 뒤 학부생의 성적 평가 방식을 전면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우리 대학의 학점이 지나치게 느슨하고 관대하다(학점 인플레이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졸업생들이 너무 뻑뻑한 학점으로 인해 취업이나 각종 자격시험에서 불리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학점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게 된 것도 기억에 남는 성과입니다.”

한국외대가 할 일, 한국외대만이 할 수 있는 일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김인철 총장은 임기 말 2년을 코로나19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비결을 물었다.

“우리 대학이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자기 혁신을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대학의 고유한 영역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확장해온 것도 비결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앞에서 언급했듯 우리 대학은 전 세계 대학의 혁신 수준을 평가하는 ‘2021 WURI 랭킹(The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 Ranking)’에서 2년 연속 글로벌 ‘톱 100’에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위기 관리 분야가 새롭게 추가된 올해 평가에서 전년 대비 12계단 순위가 상승하며, 세계 47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민족과 문화에 대한 상생과 소통의 정신일 것입니다. 국경이 사라지고 문화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한국외대가 할 일, 한국외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한국외대의 창의적인 교육제도와 국제화 전략을 개발·시행하며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인철 총장의 임기는 앞으로 5개월 남짓 남았다. 남은 임기 동안의 활동 계획이 궁금했다.

“내년 2월 종료되는 총장직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송도 부지의 캠퍼스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의 도서관 겸 박물관의 리모델링 착수와 어문계열 단과대학의 학제 개편, 융합인재대학의 발전적 정착이 중요합니다. 서울캠퍼스 단과대학의 명칭이나 신입생 모집 광역화, 일부 단과대학의 통합과 외대 특유의 International School 신설 등에 남은 에너지를 쏟으려 합니다. 이들 사업이 임기 내에 실현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씨를 뿌리고 신입 총장이 과실을 거두는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기원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융·복합 인재 육성은 기본,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한국외대는 인문계와 이공계를 아우르는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는 슬로건처럼, 외교통상사관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2020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결과 전국 대학 중 두 번째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고, 글로벌 로스쿨을 지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전국 5위에 올랐으며, 경영대학원은 2018년 AACSB 인증(경영학교육 국제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0주년을 맞이한 글로벌캠퍼스는 올해 융합인재대학(이하 ‘인제니움칼리지’; Ingenium College of Convergence Studies, ICOCs)을 신설했습니다. 인제니움칼리지를 통해 학생 스스로 선택해 설계하는 혁신적인 모듈형 교육과정이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도록 제반 여건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에 멈추지 않고 뉴노멀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개방형 교육 플랫폼 공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021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학교의 위상을 높이 세워주고 있는 17만 동문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이 동문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동문 여러분과 동문회가 모교인 한국외대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모교를 지원해주시고 후배들에게 용기와 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총장에게 재정 확충과 신뢰·화합 당부

김인철 총장은 교수와 학생, 직원, 동문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다. 김인철 총장은 “한국외대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학제 개편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언택트와 평생교육 시대에 맞춤형 대학원 온라인과정 신설, 양 캠퍼스 학과간 통합도 합의를 거쳐 실행되어야 할 주요한 현안”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임 총장 선출은 우리 대학의 새로운 리더십의 선택 과정입니다. 교수, 학생, 직원이 합심해 선택한 새 총장이 제대로 학교 발전을 향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장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교수님들의 연구력 증진을 통해 대학평가에서 국내의 순위가 더욱 향상돼야 합니다. 국내 8위에서 13위, 세계 150위에서 400위 사이에 정채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순위가 교수님들의 연구 업적과 함께 비례적으로 상승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학교의 위상을 높이 세워주고 있는 17만 동문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이 동문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동문 여러분과 동문회가 모교인 한국외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모교를 지원해주시고 후배들에게 용기와 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김인철 총장은 올해 말 정해질 신임 총장에게 전하는 당부의 메시지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무엇보다 ‘재정 확충’과 ‘신뢰·화합’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100년 외대를 위해 재정적 여력을 향상시키고, 외대인들 간의 신뢰와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 신임 총장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총장이 민망한 경우를 겪지 않고 명예롭고 품격 있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임 총장에 대한 외대 모든 구성원의 한결같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H

U



HUFS INTERVIEW

처음, 용기가 필요한 순간

양인집 33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어니컴(주) 회장·일본어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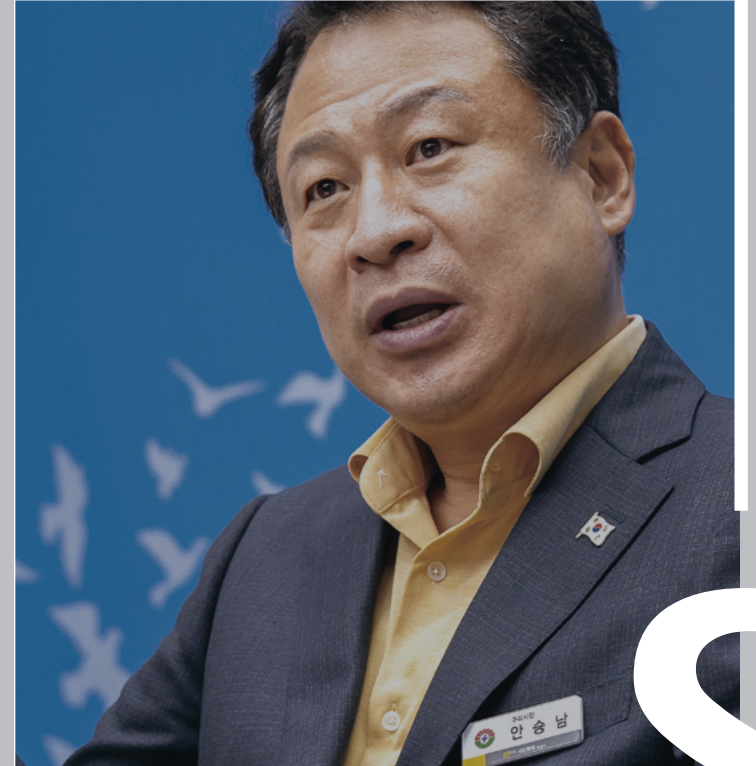
더 살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

안승남 구리시장·경제 85 / 조광한 남양주시장·중국어 81

콘텐츠로 승부하다

친수성팀 김은혜·정주안·최민영 환경학과

최은경 영미권통상통번역 전공(환경학 이중전공)



F

S

지난 7월 5일(월) 어니컴(주) 양인집 회장이 33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총동문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는 양인집 총동문회장에게서 용기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 용기가 필요한 순간

33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양인집 어니컴(주) 회장·일본어 76



● 지난 7월 5일(월) 33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소감을 들려주세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배 총동문회장님과 동문의 노력으로 확보한 동문회관에 아직 입주를 못했고, 재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총동문회는 개교 67년이 지난 대학의 동문회로서 우리 동문이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글로벌 인재를 많이 배출한 대학임을 감안하면 우리가 합심해서 '동문 역량'을 더 끌어내야 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총동문화 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4단계에 따른 거리두기 제한으로 33대 총동문화 집행부가 모여 정식으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모임을 하려면 낮에 해야 하고, 식사도 할 수 없고, 인원 제한도 따르니 현직에 있는 동문이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일 거리두기 제한이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된다면 첫 임원 대면을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총동문화가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자로 넘겨받은 총동문화 재정을 흑자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동문회는 동문들의 사랑과 자발적인 실천으로 운영되는 임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총동문화 산하단체인 120여 단위 동문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동문이 17만 명인데, 연회비 3만원을 약정한 동문이 500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심각합니다. 새로운 동문 문화와 정체성, 자존감을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산학 멘토링 사업을 살펴 보겠습니다. 산학 멘토링 사업은 전임 총동문화장님이 심혈을 기울였고, 후배에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문회와 학교가 각각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학 멘토링 사업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는 멘티 학생을 모집하고 총동문화는 멘토 동문을 연결하는 등 학교와 총동문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상호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신임 총동문화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들려주세요. 대학 평가에서 외대 랭킹이 올라가도록 총동문화가 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동문회장으로서, 우리 학교의 순위가 낮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동문회가 학교와 재단의 발전을 조력할 수 있는 활로를 찾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와 재단에 힘을 보태고 학교와 재단이사회를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동문 중에는 자

신이 외대 출신임을 밝히는데 소극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면 유능한 후배가 들어오겠습니까? 전 세계에 외대만큼 동문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명문 대학은 명문 동문이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현재 이끌고 계신 어니컴(주)은 어떤 기업이며,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니컴(주)은 1998년 무선통신 초창기에 기지국 장비 및 부품 회사 즉, 하드웨어를 다루는 회사로 창업해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모바일 통신 분야에서 국내 제일의 QA 전문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사업과 빅데이터 솔루션 부문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모바일 성능 모니터링 분야에서도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가로서 '작지만 알차고, 직원들이 회사에 스스로 우러나는 애정을 갖고, 회사는 끊임없이 직원을 생각하는 회사'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 글로벌 전문가로 거듭나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째, 무엇을 하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Good follower가 Good leader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뜻이 뭘지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셋째, 'Timing is everything!'을 기억하세요. 공부도, 사랑도, 도전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야 할 순간을 놓치면 90이 아니라 0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마지막, 동문회장으로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외대생으로는 4년이지만 외대 동문으로는 70년 이상 살아갑니다. 동문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외대를 졸업하거든 동문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주거 안정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안승남 구리시장·경제 85

- 구리시장으로서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년간의 활동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 위성도시로 정체돼 쇠퇴하던 구리시를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디지털 혁신 산업 기반의 도시로 거듭나게 노력한 점입니다. 가장 큰 경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입니다. GH 이전으로 연 1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구리시가 변화와 활력을 되찾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 공약 중 하나이고 13년간 추진하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은 중앙투자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해 종료했고,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가칭)'으로 변경했습니다. 더불어 사노동에 e-커머스 물류 단지를 조성하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해 푸드테크 밸리를 계획하는 등 혁신적 발전을 도모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 1월부터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후반기 대변인으로 선임돼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군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시·군간 상생 협력의 연결고리를 넘어 경기도 전체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막중한 역할입니다.

- 구리시장 임기가 9개월여 남았습니다. 향후 중점적인 과제는 무엇입니까?

지난 8월 30일(월) 국토교통부가 구리시의 관문인 교문동 공공주택 지구에 첫 번째 GH 기본주택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기 공공임대 주택인 GH 기본주택 1,280가구를 건설하므로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보편적 주거 서비스를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 변에 들어설 스마트시티와 사노동 e-커머스 물류 단지 조성 사업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계기로 본격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뼈대를 구축하겠습니다.

- 후배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성장에 큰 기둥이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는 역사에 답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故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가르침을 후배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은 융합과 초연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다양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외대 후배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며 혁신을 향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더 살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중심, 구리와 남양주의 지자체장은 한국외대 동문이다.

안승남 구리시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그 주인공이다.

더 살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두 시장을 만났다.

환경 혁신을 위해 쓰레기 처리에 집중

조광한 남양주시장·중국어 81

- 남양주시장으로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년간의 활동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보람이자 성과, 감동은 지하철 9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시킨 것입니다. 9호선과 4호선이 연결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를 지렛대 삼아 GTX-B노선, 지하철 9호선과 4호선 연결, 8호선과 4호선 연결을 통해 남양주를 포함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이 우리 사회 미래 변화의 한 축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들과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을 뿐 아니라, 한정된 국토 자원을 좀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 지난해 7월부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226개 중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를 대도시라 하는데, 대도시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입니다. 서울과 상생 발전하는 경기도 지역의 대도시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과 수년째 진전을 이루지 못하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행안부, 국회와 협력해 지난해 통과시켰습니다.

- 남양주시장 임기가 9개월여 남았습니다. 향후 중점적인 과제는 무엇입니까?

남양주시 3대 혁신 과제는 교통·공간·환경 혁신입니다. 교통 혁신은 철도 교통 중심이던 남양주에 지하철과 전철 노선 연장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공간 혁신은 시민들이 무료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청학밸리리조트, 정약용도서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이석영광장 등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찾아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환경 혁신입니다. 앞으로 남양주시의 청결도를 혁신적으로 높이고, 환경 훼손의 주범인 쓰레기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 후배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외대 후배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목표가 어긋났구나', '목표를 잘못 잡았구나' 깨달을 수 있고, 그 경험이 쌓여야 인생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또 하나,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거저 주어지는 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외대 재학생 시절부터 관심의 폭을 넓혀 외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당부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2021 미래세대 물교육 공동사업 수돗물 아이디어 실현 공모전’은 수돗물에 대한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교육 내용을 실현시켜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외대 친수성팀(김은혜·정주안·최민영·최은경)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콘텐츠로 승부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친수성팀_김은혜·정주안·최민영 환경학과, 최은경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환경학 이중전공)

● ‘2021 미래세대 물교육 공동사업 수돗물 아이디어 실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들려주세요.

주 평균 10시간씩 회의하면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협조해준 팀원 모두 고맙습니다. 또한 교육 콘텐츠의 기반이 된 수질 관련 전공 지식을 가르쳐준 환경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팀으로 도전할 수 있게 격려하고 응원해준 환경학과 정태용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이번 대회에서 개발한 교육용 콘텐츠를 소개해주세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음용률 향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유입이 가능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카드뉴스 형식의 만화를 선택했습니다. 미래 세대, 특히 어린이의 흥미 유발과 쉽고 재미있는 전달을 위해 ‘그림일기’라는 형식으로 디자인했죠. 콘텐츠 내용은 시민들이 수돗물에 거부감을 갖는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체계화된 정수 과정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질의 수돗물, 수돗물 음용의 환경적·경제적 이점을 설명하고,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 염소 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만큼 콘텐츠에 거부감이 없게 독자의 시각과 유사하게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했습니다. 또한 전공 관련 용어를 쉬운 단어로 대체해 어린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환경적 이점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환경친화적 수돗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내용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민영 평소 대기오염, 그중 온실가스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공모전에 도전했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보며 환경학도로서 환경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이를 실천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은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협약이 진행되는 공모전이기에 때문에 콘텐츠에 첨부될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디어 도용 및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유의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정주안 은혜가 같이 공모전에 도전하자고 제안했을 때가 기억에 납니다. 팀 과제에 항상 어려움을 느껴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팀원들과 함께하니 재밌게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은경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의견의 차이를 조율하여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한 과정이 특히 기억에 납니다. 각자 다음 회의까지 해야 할 일을 정한 후, 그것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콘텐츠 내용을 개선하려고 아이디어를 내며 협동한 과정 하나하나가 기억에 납니다.

● 대회를 치르는 동안 학과에서 도움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외대 환경학과는 특정 트랙이 아닌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학습한 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트랙별 심화 내용을 배울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경 문제를 접했을 때 한 분야에 국한된 사고가 아니라 시야를 넓혀 전 영역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 과정은 이번 공모전에서도 발휘되어 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수돗물을 음용하는 방안까지 생각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개론>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탄소 발생량을 어떤 단위로 측정하는지, 평상시 대기질에서의 탄소 농도 기준과 비교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꿈을 들려주세요.

김은혜 보건학 연구의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 후 유해물질의 노출 평가와 이로 인한 잠재적 건강 영향과의 상관성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대규모 역학 연구를 진행해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정주안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꿈입니다. 지금은 박테리아나 균류 같은 미생물을 이용해 석유화합물 생분해나 바이오 에너지 생산 등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연구소 취업과 대학원 진학 중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대기오염, 기후 모델링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모델링 구축을 위한 코딩 능력과 분석 기술을 학습한 후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 기후 변화 원인 규명과 예측 연구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최은경 환경 기술에 대한 국제 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전공과 이중전공에서 학습해온 영어와 환경학도 꾸준히 공부하고 나아가 변리사 시험공부를 열심히 해 빠른 시일 안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한국외대 입학처는 우리 대학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양재완 입학처장과 김유진 입학처 입학사정관, 입학처 조교이자 흡스타인 박가은 학생을 만나
입학처의 하반기 중점 과제와 수행 계획, 2022학년도 입시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와 눈여겨볼 학과 등에 대해 들었다.

우리 대학을 이끌어 나갈 인재 발굴을 위해

양재완 입학처장
김유진 입학처 입학사정관
박가은 입학처 조교·HUFStar(흡스타)

인재 발굴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경쟁력 있는 대학만 살아남는 시대다. 다른 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대학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양재완 입학처장은 “지난 67년 동안 외대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리 대학은 외교관을 굉장히 많이 양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적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교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다른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중요시한 결과, 외대인이 전 세계 각국의 기업에서 첨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포함한 미래에는 다른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무척 중요한데, 이 때문에 우리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봅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플랫폼이 될 수 있는 DNA를 키워온 것이 바로 외대의 가장 큰 경쟁력이니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경쟁력을 지닌 우리 대학은 인재 발굴을 위해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길지 궁금했다. 양재완 입학처장은 여러 조건이 있지만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하나는 우리 대학의 고유 가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 학생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울러 그 이해를 기반으로 본인의 활동을 얼마나 꾸준히 잘 준비했는지 살펴죠. 다른 하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사명감을 지닌 학생인지 세심하게 봅니다. 사명감을 지닌 사람은 대학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양재완 입학처장

“한국외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 발굴을 위해 가장 먼저 우리 대학의 고유 가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살펴봅니다. 아울러 그 이해를 기반으로 본인의 활동을 얼마나 꾸준히 잘 준비했는지 봅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사명감을 지닌 학생인지 파악합니다.”

하반기 중점 과제는 안정적인 입시 운영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의 인재 발굴 경쟁 심화 등 입학처의 인재 발굴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은 이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고등교육 상황을 살펴보면 학령 인구는 주는데 대학 정원은 그 대로이다 보니 외대만의 학생을 발굴·양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의 학교 생활에 많은 제약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학처는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생의 서류 등을 평가할 때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으로 인한 불리함이 없도록 자세히 살피고 평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입학처에서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는 김유진 사정관의 말이다. 입학처는 행사 및 면접고사, 논술고사 등을 진행할 때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써 수험생과 교내 구성원이 안전하게 입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한다. 지난 7월에 개최한 ‘부·울·경 ALL-IN-ONE 권역별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것도 이렇게 준비한 덕분이다.

입학처는 현재 2022학년도 입시 모집으로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유진 사정관에게 앞으로의 중점 과제와 수행 계획을 들었다.

“먼저, 9월 10일(금)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수시부터 정시까지 진행하면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전반적인 입시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입학처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불어 입학처가 수행하고 있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해 12월경부터 고교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고, 이것 역시 안정적으로 잘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고3이 되는 예비 고3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3학년도 입시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의 학교 생활에 많은 제약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학처는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생의 서류 등을 평가할 때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으로 인한 불리함이 없도록 자세히 살펴보고 평가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진 입학처 입학사정관



2022학년도 입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우리 대학은 9월 14일(화),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김유진 사정관은 “올해 우리 대학 입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면서 “어떤 환경에 있는 학생이라도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열린 전형으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 2022학년도 입시에서 주목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수시모집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장추천전형을 신설해 고교당 20명까지 학교장추천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명은 주요 대학과 봤을 때 많은 수치다. 교과 성적 반영시 등급 환산점수와 원점수 환산점수 중 상위 값을 반영하는 것도 눈에 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것이 큰 변화다. 우리 대학은 수험생의 전형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학생부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논술전형에서 자연계열 모집단위 선발을 실시한다. 글로벌캠퍼스의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에서 총 62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을 살펴보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전형 방법이 수능 성적 100%로 변경된 점이 큰 변화다. 지난해에는 수능 성적 70%와 서류 평가 30%를 합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정시모집 전형의 취지와 특징을 살리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능 성적 100%로만 선발한다. 또한 글로벌캠퍼스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시 응시 영역 제한이 사라져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도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 영역의 환산점수 급간이 변경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 대학의 2022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학과는 글로벌캠퍼스 융합인재대학이 대표적입니다.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핵심 전략 학과라 할 수 있죠.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LD(Language & Diplomacy)학부와 LT(Language & Trade)학부도 있습니다. 이외에 경영대학과 다양한 전략언어 학과도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입학처의 입시 도우미, 흙스타(HUFStar)

입학처에서 조교로 2년째 힘을 보태는 박가은 학생은 흙스타로 활동하고 있다. 흙스타는 평소 수험생이 애용하는 입시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수험생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전형별 Q&A 답변이나 유선 상담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외에 모든 입시 전형에서 준비와 진행을 돕는다. 흙스타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물었다.

“흙스타로서 진행한 모든 입시 전형이 기억에 납니다. 각 고사실 세팅부터 안내까지, 입학처 선생님과 흙스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힘들게 준비한 만큼 입시 전형이 마무리되면 뿌듯하고 기억에 많이 납니다.”

흙스타로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무엇일까.

“학부모와 수험생은 과년도 입시 결과와 현재 본인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입시 결과는 지원자에 따라 해마다 변동되므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란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입시 결과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계열적합성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진로선택 과목 등 현 교육과정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는지 학생부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입학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모의면접, 대입톡, 선배들의 합격 생기부 파헤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의 협조 덕분에 매년 입시 잘 치러

인터뷰 말미, 우리 대학 입학처를 이끌어 가는 포부를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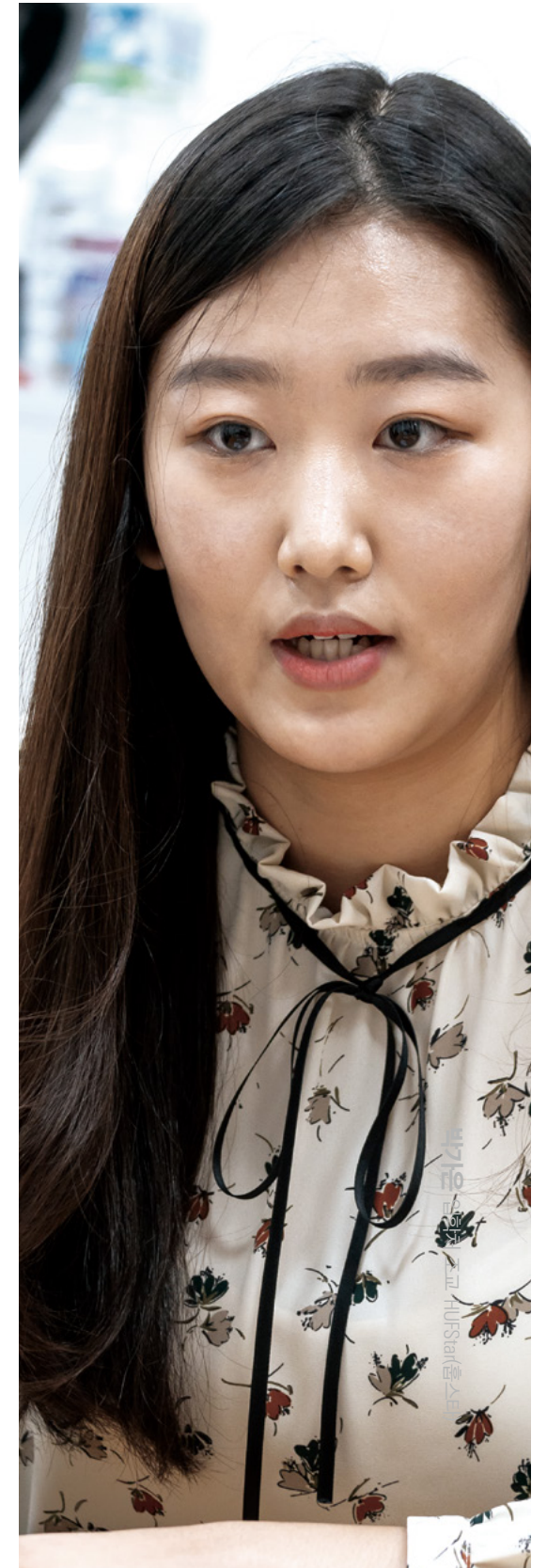
“입학처는 입학처 본연의 임무인 경쟁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양재완 입학처장에 이어 김유진 사정관은 학교 내 다른 부서에 감사의 말을 건넸다.

“입학처의 입시 운영은 입학처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잘해주었기 때문에 입학처가 매년 입시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가은 학생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하는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입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나 전형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주저 말고 입학처로 문의하세요. 먼저 입시를 경험한 선배로서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후회 없이 준비한 후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와 수험생은 과년도 입시 결과와 현재 본인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입시 결과는 지원자에 따라 해마다 변동되므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입시 결과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박가은 입학처 조교·HUFStar(흙스타)

한국외대 국제학생회(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ISO)는

우리 대학을 찾은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든든함 그 자체다.

외국인 교환학생에게는 우리 대학에서의 생활은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 자체가 낯선데,

국제학생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대학 국제학생회 황유림 회장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대학 외국인 교환학생은 우리가 책임져요!



국제학생회(ISO) 회장

황유림 EICC학과 20

교환학생의 부담과 어려움 덜어주고 싶어 시작

외국에서 생활한 시간이 길어 대학 입학 전까지 한국에서 장기간 산 적이 거의 없다. 가족은 계속 외국에서 생활하고, 나 혼자 대학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외대 20학번으로 지난해 3월 입학했고, 수업도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친구를 사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입학 당시 한국은 정말 외국 같았다. 말은 통했지만, 한 학기를 통째로 기숙사 방에서 보내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딱히 없었다.

그러던 중 ISO의 GAT(Give and Take)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그때 ISO가 하는 일이 좀 특별하게 다가왔다. 더불어 매학기 우리 대학으로 오는 교환방문 학생들이 약 30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도 한국 생활에 처음 적응할 때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누군가의 부담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종강할 즈음 ISO에 지원했고, 3학기째 ISO에서 일하고 있다. 올 2학기부터는 ISO 회장을 맡았다.



우리 대학의 대표 외국인 교환학생 프로그램

ISO 프로그램은 매학기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한국인 학생과 우리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온 외국인을 1:1 매칭하는 'BUDDY 프로그램'이다. BUDDY 프로그램은 친목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버디와 함께 한 학기 동안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을 탐방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다. 두 번째는 'GAT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1 언어 교환 프로그램인데, 학우들의 전반적인 외국어 능력 향상과 문화 교류를 통한 견문 확장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은 교환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인 학생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게 기획한 '아띠 Main Event'로 매학기 두 번 진행한다. 예전에는 추석 체험, 도장 만들기, 사진 콘테스트, 보물 찾기 등을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ISO 스태프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

ISO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자 고민은 코로나19였다. 올 6월 회장 임기를 시작했는데,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ISO 행사 중에 '체크인'이 있다. 교환학생을 처음 마주하는 시간으로 기숙사 입사 과정을 보조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중요 서류 등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일이다. 매학기 스태프들이 기대하는 행사며, ISO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2021학년도 2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회장, 국제입학관리팀 선생님까지 고민이 무척 많았다. 체크인이라는 것 자체가 행사 특성상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어 스태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름방학 동안 임원진 회의를 계속 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최대한 비접촉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크와 장갑 착용은 물론이고,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게 인력을 축소하고 체크인 절차도 간소화해서 진행했다. 모두 불안하고 준비 시간도 많이 없었지만, 같이 고민해준 임원진과 같이 고생해준 스태프 덕분에 가을학기 체크인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체크인 행사 기간 동안 스태프들이 교환학생을 열심히 도와주고 마무리한 뒤 나중에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다" 등 속내를 전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하다. 특히 신규 스태프의 경우 내가 직접 지원서를 검토하고 면접을 본 친구들이라 이런 친구들이 ISO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회장으로서 가장 큰 낙이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노력하는 진정한 팀워크

1년 동안 ISO에서 일하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한층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솔직히 모든 일이 원활하게 잘 풀렸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다. 지난번에 Main Event를 진행할 때 날짜를 잘못 계산해 교환학생들이 어학당에서 시험 치르는 날이랑 겹쳤다. 당연히 참여율이 저조했고, 행사 주치를 한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졌다. 그때 스태프들과 대책을 고민한 끝에 행사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스태프들이 원래 있던 일정을 조율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하루 더 힘썼다.

이와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하고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태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ISO에서 해낼 수 있었던 모든 일은 뒤에서 묵묵히 노력해준 스태프들이 만든 것이다. 한 사람이면 절대 할 수 없는데,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같이 힘을 쓰면 어떤 일이건 간에 결국 해내게 되는 것 같다.



한국외대 국제교류처의 국제입학관리팀 윌리엄 스튜어트와 국제교류팀 김보명 과장이 함께 힘을 쏟은 논문 ‘Commitment to Academic Exchanges in the Age of COVID-19’가 SCOPUS에 등재된 국제 학술저널로 출간되었다. 우리 대학을 세계와 공유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이를 담당하는 윌리엄 스튜어트와 김보명 과장을 만났다.

한국외대를

세계와 공유하는

또 하나의 방법

국제입학관리팀
윌리엄 스튜어트
(William H. Stewart)

국제교류팀
김보명

실무를 다루는
학술자로 빛난 순간

논문 ‘Commitment to Academic Exchanges in the Age of COVID-19’은 우리 대학으로 유학온 외국인 교환학생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동기과 자가격리 경험,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조영·분석한 내용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외국인 교환학생의 생활주기(life cycle)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입국 전 준비 과정(pre-arrival stage)에 있는 학생을 어떻게 하면 낯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준비시킬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한국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 자가격리 정책을 발표했고, 국제교류처는 이 새로운 과정을 입국 예정인 외국인 교환학생과 자매 대학 관계자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때 저는 외국인 학생이 자가격리 비용까지 더 들어가면서 교환학생으로 오려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또 자가격리라는 새로운 단계가 교환학생의 생활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술적 렌즈를 통해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제교육 분야 실무자인 동시에 학술 연구자로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윌리엄 스튜어트는 2년 전 우리 대학 국제교류처 직원이 된 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11편의 논문이 국제 학술저널로 출간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올해에만 7편이 출간 확정됐는데, 그중 4편이 SCOPUS에 등재된 학술저널이고 2편은 동시에 SSCI에 등재된 학술저널이다. 출간된 논문 대부분 우리 대학 국제교류처에서 진행한 업무를 바탕으로 했다.

국제적으로 우리 대학
위상이 더 높아진 느낌

이번 논문은 윌리엄 스튜어트와 김보명 과장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다.

“처음 국제교류처에서 업무를 시작했을 때 김보명 과장의 풍부한 국제교류 업무 경험과 열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국제교류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한국외대를 외국인 학생이 오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같이 고민합니다. 이 논문도 결국 이런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윌리엄 스튜어트의 말이 끝나자 김보명 과장은 “윌리엄 선생님과 저와의 교류도 하나의 국제교류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어떤 주제에 대해 각자 시각이 다르므로 자연스럽게 다각도에서 내용을 검토·보완할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업무 경험에서 나온 여러 사례를 공유하고, 그에 덧붙여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 가능한지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서로 영감과 시너지 효과를 주는 존재입니다.”

이번 논문이 호평받으면서 국제적으로 우리 대학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다. 김보명 과장은 “윌리엄 선생님 덕분에 매일 하는 업무가 가치 있는 학술 자료로 출간되는 것을 보고 정말 뿌듯했다”면서 “자매 대학 관계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서 우리 대학의 위상이 더 높아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윌리엄 스튜어트 역시 “한국의 국제교육 분야에 대해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 사례가 많지 않고, 특히 영어로 집필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우리 대학이 국제교육 연구를 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다

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퀄리티는 국제교류 인력의 전문성과 직결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보명 과장은 “국제교류의 전문성은 대학 역량과 직결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대학의 국제화는 국제교류처 차원의 일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화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수립돼야 하고, 이를 실행할 학교 차원의 정책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려면 원어 강의 수를 늘리고 여러 가지 수강 신청 제한을 풀어야 하는데, 이는 학교 차원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물었다.

“국제교육 분야의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처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학술 연구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기존 국제교류를 규정짓던 규범과 틀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추후 기존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

은한 웹 기반 가이드북을 몇 차례 제작한 바 있습니다.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고 차근차근 알려주는 교환학생용 오리엔테이션 동영상도 최근 만들었고요. 이 덕분에 외국인 학생의 문의는 줄고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김보명 과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국제교류’라는 또 하나의 차원이 열린 것 같다고 했다.

“국제교류처에서 13년째 진행한 ‘국제 여름학기’를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려 계획했는데, 이를 부서 차원에서 구현해내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윌리엄 매직’이 발현됐습니다. 윌리엄 선생님이 합류하면서 작업이 척척 진행됐고, 최초의 ‘온라인’ 국제 여름학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국제 여름학기 담당자와 윌리엄 선생님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한 덕분이죠. 온라인 교류의 장점을 활용해 기존 프로그램과 병행하면 또다른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므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교환학생은 대학의
자산이자 한국의 자산

과 더불어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스튜어트의 말이다. 김보명 과장은 “윌리엄 선생님과 계속 같이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국제화를 이끌어나가고 싶다”면서 “우리 대학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윌리엄 선생님처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근무 환경이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전하는 말을 덧붙였다.

“국제교류처는 이유나 처장님 이하 모든 실무진이 매순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합니다.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주춤한 순간에도 실무진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계속 움직이고, 각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1 프로그램’ 담당자는 미국 버클리대학교와 영국 웨스턴스터 대학 등 우리 대학 학생의 파견학생 수요가 높은 명문대학과 직접 협의해 협정 체결 서명을 앞둔 상태입니다. 내년 1월 선발부터 반영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청년 스타트업에 눈을 돌려야 할 때

스타트업, 생활 트렌드를 바꾸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기가 대단하다. 사실 지난해 3~4월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스타트업들도 다 망할 줄 알았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알고 보니 코로나19는 세상이 디지털화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덕분에 대부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코로나19가 도약의 계기가 됐다. 쿠팡, 배달의민족,마켓컬리, 토스 등 디지털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몇 배씩 성장했다. 시장 지배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몇 배씩 늘어난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디지털 전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스타트업에 거액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토스,마켓컬리, 위이드, 아놀자 등 앞선 스타트업에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우리 생활이 아닐까 싶다. 이제 한국에서 스타트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렵다. 특히 젊은이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들은 매일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통해서 쇼핑을 한다. 음식은 배달이나 쿠팡이츠로 시켜 먹는다. 새로 이사 갈 원룸은 직방을 통해서 알아본다. 송금 등 금융 관련된 일은 토스로 처리한다. 웹툰과 웹소설은 리디북스로 즐기고, 영화는 왓챠로 본다. 사고 싶은 옷은 지그재그를 통해서 찾아보고 주문한다. 여행을 가고 싶을 때는 아놀자를 통해서 호텔을 예약하고, 차는 쏘카를 통해서 빌린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퍼블리나 클래스101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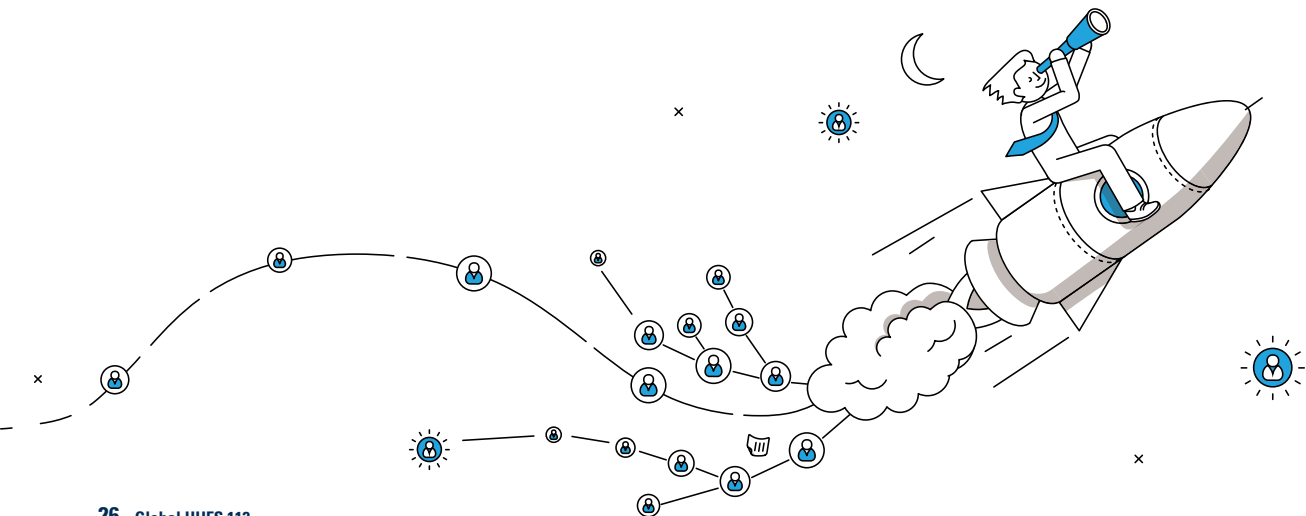
예전에 한국인들은 삼성, LG, SK, 현대, 롯데 같은 재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생활 트렌드가 스타트업 때문에 바뀌고 있다.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실감할 것이다.



임정욱
TBT 대표이사·경영 89



+



스타트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채용 시장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은 스타트업 강국이 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되려면 인재, 투자, 시장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아 훌륭한 인재를 꾸준히 키워서 배출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학 이외에도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이공계 인재를 키우는 연구중심 대학이 포진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 나간 유학생도 무척 많고, 이런 인재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활약하고 있다. 이런 인재들이 최근에는 스타트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사도 무척 많다. 중기벤처부에 등록된 창투사만 170개가 넘고,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증권사와 대기업 등을 합하면 거의 300개가 넘는 투자사들이 있다. 한국 시장도 사실 작지 않다. 3만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5천만 인구가 있는 나라다. 더구나 한국의 MZ세대는 대단한 얼리어답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인 제조업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토종 인터넷 기업들도 버티고 있다. 스타트업을 인수할 큰 기업들도 많다는 얘기가.

덕분에 스타트업에 큰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약 5년 전만 해도 들어보기 어려웠던 한번에 100억 이상의 스타트업 투자 유치 뉴스가 매일 나온다.마켓컬리, 위이드, 당근마켓 등은 각각 2천억원씩 투자받았다는 기사가 언론을 장식했다. 아놀자는 무려 2조원을 투자받았다. 사실 기존 대기업들도 이 정도의 자금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들 스타트업 중심으로 채용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내가 만나는 스타트업 중 상당수가 맹렬히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개발자 확보는 전쟁이다.

미래의 네이버, 카카오가 될 스타트업을 찾아라

이런 상황인 만큼 외대인 여러분들도 스타트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외대 학생들은 대기업, 공공기관만 보지 말고 스타트업에도 눈을 돌리기 바란다. 미래의 네이버, 카카오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스타트업이 정말 많다.

스타트업은 급성장하는 조직이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면서 구성원들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성장의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다. 성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맞닥뜨리며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 평생을 함께할 귀중한 동료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다. 특히 나중에 직접 창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물론 모든 스타트업이 다 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좋은 스타트업을 골라서 들어가야 한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스타트업이 나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요즘은 스타트업 정보가 많아 검색만 해도 많은 스타트업을 찾을 수 있다. 또 그런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좋은 벤처캐피탈, 투자사들에게 투자를 받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회사라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본다. 요즘은 SNS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정말 관심이 가는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용기 있게 문을 두드려야 한다. 요즘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은 채용에도 열심이고, 특히 자신의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연락하는 인재를 환영한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 찾아보고, 미리미리 직무 스킬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 역시 온라인에 좋은 강의가 많아서 의지만 있으면 쉽게 배울 수 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국제 감각과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대인들에게 스타트업은 매력적인 일터가 될 것이다.

H

U

F

S

HUFS NEWS

HUFS Topics

HUFS Today

HUFS Academies

HUFS Professors

HUFS Institutes

HUFS Books

CUFS News

양인집 어니컴(주) 회장, 33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취임

우리 대학은 지난 7월 5일(월) 스마트도서관 휠라아쿠슈네트홀에서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으며, 33대 총동문회장으로 양인집 어니컴(주) 회장이 취임했다.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김종철 이사장, 우리 대학 김인철 총장 등을 비롯해 김종인 23대 총동문회장(독일어 58), 양인모 24·25대 총동문회장(독일어 59), 민동석 31·32대 총동문회장(노어 73), 국회의원 박진(전 석좌교수), 박성준(정치외교 89) 의원, 강임준 군산시장(일본어 73), 조광한 남양주시장(중국어 81), 안승남 구리시장(경제 85) 등이 참석했다. 양인집 총동문회장은 “큰 영광임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재정의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경비의 엄격한 집행으로 재정의 흑자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지역 ‘ALL-IN-ONE 권역별 설명회’

우리 대학 입학처(처장 양재완)는 지난 7월 3일(토)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지역 ‘ALL-IN-ONE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다. 1부는 지원 전략 설명회로 2022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사항과 전년도 전형 결과에 대해 안내하고, 학부모 브런치토를 통해 입학사정관과의 1:1 밀착 상담을 진행했다. 2부는 교사 대상 컨퍼런스와 모의 서류평가로 구성됐다. 현직 교사가 직접 우리 대학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합격·불합격 사례를 평가함으로써 고교와 대학간의 시각차를 줄이는 기회가 됐다. 설명회에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270여 명이 참석해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접하고, 2022학년도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았다.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미국 럿거스대(뉴저지주립대) 로스쿨과 MOU 체결

우리 대학 대학원(원장 김신영)과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한중)은 미국 대규모 로스쿨 중 하나인 럿거스 로스쿨(Rutgers Law School)과 MOU(협력협정)를 체결하고,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JD) 및 일반대학원 법학석사(Master of Law) 졸업생의 럿거스 로스쿨(Newark 캠퍼스) 2년 속성 JD 과정 입학 특례에 합의했다. 지난해 8월 학생 및 교원 교류에 관한 1차 MOU 체결에 이은 이번 2차 MOU 체결을 통해 기존 3년 JD 과정을 2년 속성으로 제공하는 미국 측 프로그램 관련 양교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MOU 체결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5위(입학 기준)에 오르며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로스쿨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대학 로스쿨의 위상을 보여준다.



산업경영공학과 황기택 학생, 제56회 발명의 날 발명유공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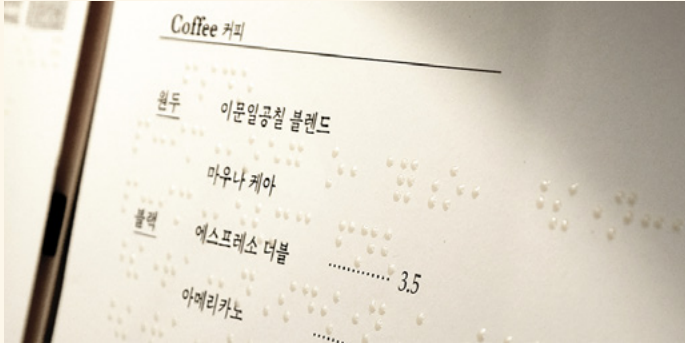
우리 대학 산업경영공학과 4학년 황기택 학생이 지난 5월 31일(월)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아 발명유공자로 선정됐다. 특허청에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발명의 날 기념식은 우수 발명 유공자를 선정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하는 행사다. 황기택 학생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발명을 통해 학생 발명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근무 중 보조기기 발명으로 장애인 권리 증진에 기여했고, 이와 관련해 특허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등 발명 특허 관련 각종 대회에서 다수 입상했으며, 특허청 서포터즈, 기자단 활동 참여 등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다.





허동원(법학 89) 아시아교류협회 회장 감사패 전달식

지난 6월 4일(금) 모교 후배를 위해 블루투스 이어폰 3,000개를 본교에 기증한 허동원(법학 89) 아시아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허동원 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총장, 제성훈 학생인재개발처장, 김봉철 EU 연구소장이 참석하였다. 허동원 회장은 2005년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탄생한 이래 아시아 국가와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시아교류협회를 이끌고 있다.



서울시캠퍼스타운사업단, 이문일공침 점자 메뉴판 도입

우리 대학 서울시캠퍼스타운사업단(단장 윤성우, 이하 '사업단')은 이문일공침에 점자 메뉴판을 도입하고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실천에 앞장선다. 배리어 프리란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한다. 이문일공침은 지난 6월부터 점자 메뉴판을 준비했다. 점자 메뉴판 상단에는 보이스코드가 있어 시각장애·저시력자·다문화가족을 위해 번역된 음성으로 메뉴판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어문화교육원, 동대문경찰서와 온라인 범죄예방 교육

우리 대학 한국어문화교육원(원장 김의수)은 지난 6월 18일(금) 동대문경찰서(서장 이연재)와 2021학년도 여름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어문화교육원과 동대문경찰서 외사계가 협력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한국어문화교육원 소속 수강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112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 및 가해 주의, SNS 사기 주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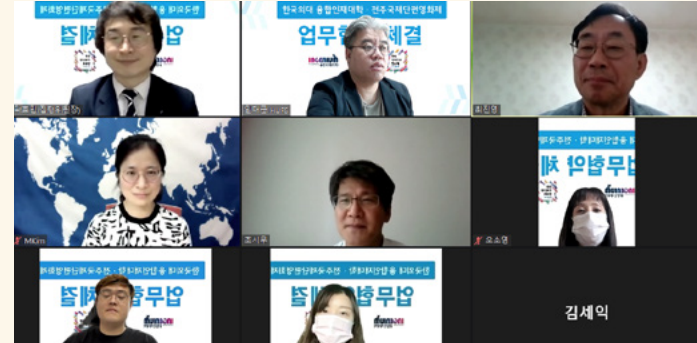
학생상담센터, 유학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신설 운영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전재은)는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은 2020학년도 기준 2,267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5%에 해당한다. 학생상담센터는 유학생의 외국생활 및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해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심리적 위기를 예방하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 '유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한다.



한국외대, 한국 특수외국어교육협의회 설립 총회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원장 오종진)은 6월 21일(월) 대학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 특수외국어교육협의회' 설립 총회를 개최했다.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난 4년 동안의 1단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정리하고 2단계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외대, 부산외대,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은 물론 국립국제교육원과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참여했다.



융합인재대학, 전주국제단편영화제와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 융합인재대학(학장 최진영)은 지난 6월 24일(목) 전주국제단편영화제(JISFF, 집행위원장 곽효민)와 영화제의 원활한 운영과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협력하기로 하고, 우리 대학 융합인재대학 학생의 영화제 현장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융합인재대학 소속 학생 및 교원의 영화제 출품, 운영진(staff) 참여, 관람 혜택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외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최종 선정

우리 대학 데이터센터(센터장 윤성우)는 지난 6월 18일(금)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개 입찰한 42억 규모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다국어(한-영중) 음성 데이터 구축 및 다국어(한-중일독불서) 구어체 번역 말뭉치 구축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전문 도메인별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AI 다국어 통번역기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 12월 31일(금)까지 진행되며, 데이터센터 책임연구원(한승희 통번역대학원 특임교수)의 주도 아래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어문화교육원, 2021 국가별 맞춤형 한국유학박람회 참가

우리 대학 한국어문화교육원(원장 김의수)은 지난 7월 4일(일) 국립국제교육원과 재외공관(한국교육원)이 공동 주관한 '2021 국가별 맞춤형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유학 박람회로 유학 홍보를 다변화하고, 맞춤형 한국 유학 홍보 확대로 일본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 대학 한국어문화교육원을 포함한 국내 52개 대학이 참가했고, 7월 6일(화)까지 진행됐다.



KD운송그룹, 글로벌캠퍼스 환경개선 기금 기탁

KD운송그룹(사장 허상준)이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환경개선 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7월 7일(수)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탁식 행사에서 KD운송그룹 허상준 사장은 "한국외대와 KD운송그룹의 40년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의 발전을 처음부터 함께해온 KD운송그룹은 이런 귀한 인연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며 이번 환경개선 기금 기탁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외대, 하이브에듀의 한국어 교재 다국어 번역 및 현지화 사업 동참

우리 대학 연구산학협력단(단장 박영철)은 지난 7월 19일(월)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K-POP 열풍을 이끄는 하이브의 자회사 하이브에듀와 '하이브에듀에서 개발하는 언어 교육용 콘텐츠의 번역 및 현지화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듀에서 개발하는 한국어 교재의 다국어 번역, 성우 녹음 디렉션, 최종 음원 검수(소리펜 교구 탑재 내용 포함) 등 하이브에듀 교육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작업에 우리 대학 교수진이 참여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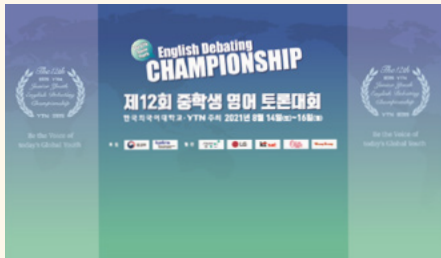
진로취업지원센터, 2021학년도 1학기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결과 발표회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센터장 오세홍)는 지난 7월 22일(목) 2021학년도 1학기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 20명과 교육부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 담당자, 해당 프로그램 지도교수, 진로취업지원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상은 김지열 학생에게 돌아갔다. 2021학년도 2학기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참가자는 8월 9-20일까지 모집했다.



한국외대, 주한 터키 대사관-유누스엠레 터키문화원과 터키 정부 인턴 수료-발대식

우리 대학은 주한 터키공화국 대사관,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원장 오종진)과 공동으로 8월 19일(목) 터키 정부 파견 인턴 1기 수료식과 2기 파견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터키 정부 인턴 파견 프로그램은 주한 터키공화국 대사관과 국영 항공사인 터키항공(THY),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이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연간 8명의 우리 대학 재학생이 터키 정부에서 인턴 경험을 쌓는다. 2기 인턴은 9-12월 말까지 터키 정부 기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제12회 YTN-한국외대 온라인 중학생 영어토론대회

우리 대학과 YTN이 주최한 제12회 중학생 영어토론대회가 8월 14일(토)~16일(월) 온라인 대회로 치러졌다. '20대는 정치인으로서 너무 젊은 나이다'는 정치 주제부터 '교육 평등과 공교육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특목고는 점차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 문제, 범죄와 정의, 국제 관계, 소수자 권익, 경제, 비즈니스 등 8개 주제가 토론으로 다뤄진 이번 대회에는 모두 76개 팀(국제리그 57개 팀, 국내리그 19개 팀)이 출전했으며, 본선에 올라온 24개 팀이 경합했다.



창업 동아리 'N0:0N',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우리 대학 창업 동아리 'N0:0N' 남한솔 학생(GBT학부)이 유망 기술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돼 정부지원금으로 총사업비 4천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예비창업패키지 팀은 남한솔 학생 외에 김민정(노어과), 김승연(GBT학부), 문규원(중국어통번역학과), 원종필(정보통신공학과), 이상연(통계학과), 홍세령(중앙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이 함께하고 있다.



GTEP(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사업단, 제10회 로하스박람회 참가

우리 대학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단장 백재승, 이하 'GTEP사업단')이 지난 8월 13일(금)~15일(일)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제10회 온오프라인 로하스박람회'에 참가해 전시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GTEP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협력업체 12곳과 함께 참가해 식품, 반려동물,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실제로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시회 활동을 통해 박람회 기간 400여 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스포츠정치외교연구회 공동 학술회의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의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6월 4일(금)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스포츠정치외교연구회와 공동으로 '스포츠를 통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도쿄 올림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도쿄 올림픽을 중심으로 스포츠를 통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했으며, 특히 국제정치 및 외교 전문가와 스포츠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HK+국가전략사업단, 총서 시리즈 3권 발간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이 지난해 5월부터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을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1년 차 결과물을 다음 세 권의 책으로 펴냈다. '아시아와 북방, 문화접점의 확인', 두 번째로 영어 단행본인 'Supra-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북방: 문명과 문화의 함께 걷기'이다



HK+국가전략사업단, 엠스토리허브와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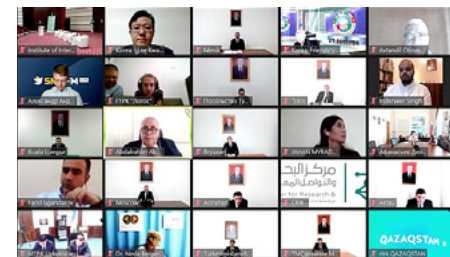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6월 28일(월) 디지털 콘텐츠 업체 ㈜엠스토리허브(대표 이기수)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엠스토리허브는 웹소설, 웹툰 등 콘텐츠를 국내 주요 플랫폼을 통해 공급하며 중국, 일본, 태국 진출에 이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사업단과 엠스토리허브는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연구 자료 및 조사, 현지 정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HK+국가전략사업단,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주최 포럼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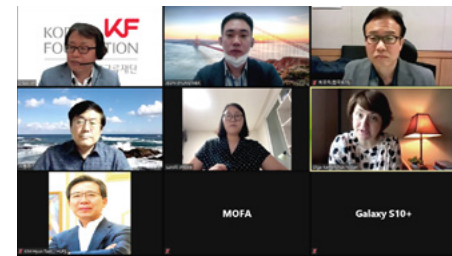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6월 30일(수)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초청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외무부 주최 '정치학자들과 언론인들을 위한 지역 대화' 온라인 국제 포럼에 참가했다. 이번 포럼은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30주년 및 영세중립국 선언 2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로, 주요 연사들이 중앙아시아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발전 현황을 논의하고 앞으로 중앙아시아와 인근 지역 발전을 토의했다.



러시아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 설문조사 시행 및 온라인 브리핑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6월 1일(화) 러시아 국민의 한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러시아연구소와 러시아 설문조사 기관인 프치옴과 공동 시행한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연구소 최우익 교수와 프치옴 선임연구원인 올가 카멘추크는 러시아 국민의 한국 및 한국 국민에 대한 인지도 수준 변화, 한국의 관광 및 문화적 매력도, 한러 수교 30주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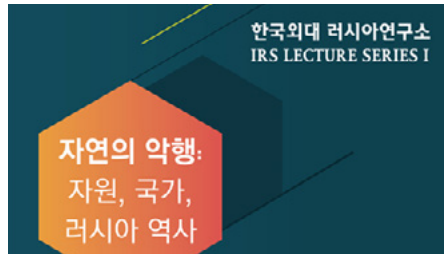
제11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 시상식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6월 4일(금)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에서 제11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러시아연구소와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러시아어 학습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돼온 행사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학에서 36명의 학생이 참가 신청을 할 정도였다.



해외 석학 온라인 강좌 'IRS Lecture series'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6월 14일(월)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학과와 공동으로 온택트 시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연구소의 풍부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석학 온라인 강좌 'IRS Lecture series'를 개최했다. IRS Lecture series는 해외 석학을 초청해 그들의 신간 서적을 중심으로 러시아 사회와 문화, 문학과 예술의 첨예한 문제에 대해 듣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러시아연구소가 기획한 것이다.



외교부 주관 '2021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사업' 선정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2021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러시아 연구 관련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센터(소장 엄구호), 유라시아정책연구원(원장 고재남)과 컨소시엄으로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양국의 주요 싱크탱크간 교류와 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 12월까지 4차례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도연구소

HK+사업단, 제3회 인도-남아시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5월 26일(수)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제3회 인도-남아시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3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인도의 대전환', '인도 남아시아 관련 자유주제' 두 주제를 제시했고, 응모한 대학(원)생의 논문 14편이 접수돼 최종 6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에서 대학(원)생 11명에게 650만원의 상금과 상장, 소정의 선물이 수여됐다.



HK+사업단, 한국인도학회 공동 '한국인도학회 제50차 정기학술대회'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6월 12일(토) 한국인도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인도학회 제50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내 인도학 연구의 발전과 관련 학자들의 학술 교류를 위해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인도 및 남아시아의 종교와 문화, 언어,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HK+사업단의 아젠다인 '인도의 대전환과 인도학의 한국적 재해석'의 성과를 도출하는 장이 됐다.



HK+ 사업단, 명사초청 특강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6월 14일(월)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트래비스 스미스 교수를 초청해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Principles of Pleasure: Ethics and Aesthetics in the Kāmasūtra'라는 주제로 개최된 특강은 3세기 인도 문헌인 바즈야나의 까마수트라를 통해 바즈야나의 날카로운 미학적 통찰의 예들을 고찰하고, 나아가 욕망의 기초로 존재하는 에로틱한 경험과의 상관성에 대한 강조를 보여주려 했다.



HK+사업단, 주한 인도문화원 스와미 비베까난다 센터 도서 기증 및 협약식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7월 1일(목) 주한 인도문화원 스와미 비베까난다 센터로부터 도서와 멀티미디어 자료 2백여 점을 기증받고, 향후 지속적인 도서 기증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한 인도문화원 소누 프리베디 원장은 이번 도서 기증식을 기반으로 한국과 인도의 문화 교류가 강화되기를 기대했으며, 앞으로도 인도연구소의 종합정보자료실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장모네 EU센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공동 국제심포지움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6월 24일(목)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CK)와 공동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 10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을 겸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 IT학부 강유덕 교수와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가 각각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법적 현실에 대해 논의했고, 유럽 측 학자는 개정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 양자의 의견 조율이 중기적 전망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세대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공동 세미나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8월 17일(화) 대학본부 11층 회의실에서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와 공동으로 '기후변화와 법제 그리고 국제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총 네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공동 세미나를 통해 연구자들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우려하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수막 카우사이 포럼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6월 18일(금) 서울 포시즌스 호텔 10층 멤버십 라운지에서 수막 카우사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데스 지역 핵심 국가들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고취하고, 한국과 안데스 핵심 국가들 사이 학문적 교류를 추진하며, 유튜브 콘텐츠와 다양한 문화 이벤트 등을 통해 안데스 지역 핵심 국가들의 전통과 역사를 한국에 소개하기 위한 정기행사의 일환으로 HK+사업단이 관련 국가 외교관을 초청해 마련했다.



HK+사업단, 한국 스페인어문화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6월 25일(금)~26일(토) 한국 스페인어문화회(회장 신정환)와 공동으로 '동서양의 만남 500년'과 '문명과 생태의 만남'을 주제로 줌과 유튜브를 통해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석학들의 기조연설과 함께 5개국 22개국에서 123명의 학자가 대거 참여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스페인 어문학에 관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넘어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인류 공통 과제인 생태 문명의 건설을 위해 본격적인 탈근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HK+사업단, '저자와의 대화' 개최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7월 19일(월)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8동 제1세미나실에서 '지구를 위한 법학-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 중심주의로'(서울대학교출판원, 2020)의 공동 저자인 최선호 변호사를 초청해 '지구를 위한 법학'을 주제로 비대면 '저자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사업단은 생태-환경 관련 저자를 초청해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생태 문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HK+사업단, 용인시-경희대학교 중남미연구소 공동 주최 시민강좌 성료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지역인문학센터는 5월 25일(화)~7월 13일(화) 경희대 중남미연구소(소장 황수현), 용인시청과 공동 주최로 관하는 '용인시민과 함께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 기행(음식문화편)' 총 8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커피, 초콜릿, 옥수수, 설탕, 감자, 고기 등 라틴아메리카의 음식 문화를 주제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획했으며,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온라인(Zoom)으로 실시간 진행됐다.



HK+사업단,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공동 주최 인문학 강좌 성료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 지역인문학센터는 7월 5일(월)~26일(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온라인 인문학 강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정기강좌는 수강생의 특성을 고려해 강사가 기관에 직접 방문해 강의하고, 수강생은 집에서 수강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계 조작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노년층이 새로운 강의 방식에 적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HK+사업단, 영통도서관 공동 정기강좌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 지역인문학센터 (빠차마마)는 6월 8일(화)~7월 27일(화) 경기도 수원시 영통도서관에서 '영화를 통해 읽는 라틴아메리카'를 주제로 한 온라인 인문학 강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강좌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70여 명의 수강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HK+사업단, 'Post-2020 글로벌 생물 다양성 체계' 국제 전문가 워크숍 참가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8월 17일(화) 볼리비아 부총리실, 볼리비아 외교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원주민개발기금(FILAC) 공동 주관으로 열린 'Post-2020 글로벌 생물 다양성 체계 맥락에서의 자연과의 조화 국제 워크숍'에 전문가 패널 자격으로 참가했다. 세계적인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제 여론을 조성함은 물론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과 학교, 연구소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HK+사업단, 전국 스페인어 교사 협의회와 업무 협약 체결식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8월 19일(목)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세미나실에서 전국 스페인어 교사 협의회(회장 조경호)와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전국 중등 교육 과정 스페인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전문가 육성과 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상호 기관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류 협력의 첫 사업으로 9월 제1기 스페인어 교사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정기 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중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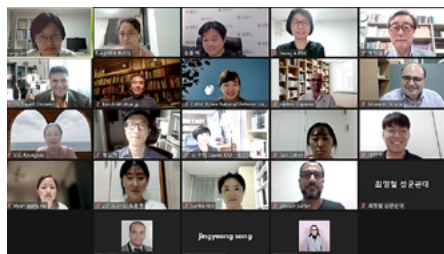
인문사회연구사업단, 기업설명회

우리 대학 중동연구소(소장 박재원) 인문사회연구사업단은 5월 28일(금) 걸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걸프시장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제1세션은 '걸프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제2세션은 '걸프국가의 비즈니스 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학계, 공공기관, 주한 아랍대사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고 있는 걸프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인문사회연구사업단, 제1회 국제학술대회

우리 대학 중동연구소(소장 박재원) 인문사회연구사업단은 8월 19일(목) 'Transboundary Migration of Arab People: Neo-Diaspora in Post-Arab Spring'를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중동연구소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전략적지역연구형) 연구과제를 시작한 이래 처음 개최된 행사다. 아랍 지역의 정치, 안보, 사회·문화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를 초청해 아랍 지역의 이주민 및 난민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U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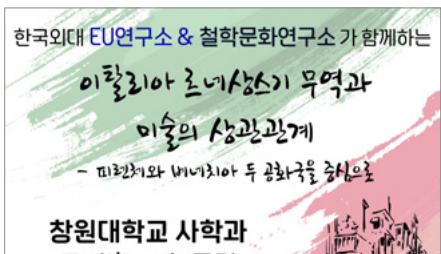
EU-Korea Young Scholars' Workshop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6월 4일(금)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EU-Korea Young Scholars' Workshop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럽연합(EU) 및 유럽 지역을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패널1은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EURAXESS Korea, 패널2는 고려대 장모네 EU센터-노르딕-베네룩스센터, 패널3은 우리 대학 EU연구소, 패널4는 (사)한국유럽학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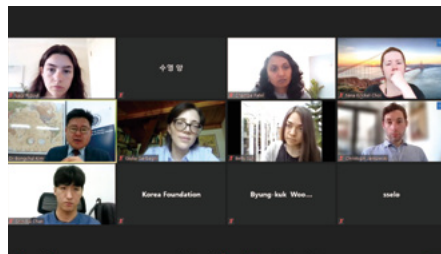
철학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인문학 특강 공동 개최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6월 11일(금) 철학문화연구소(소장 권영우)와 공동으로 인문학 특강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초청 특강은 창원대학교 사학과 구지훈 교수가 '이탈리아 르네상스기 무역과 미술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미술작품에 나타난 당시 유럽 도시들과 사람들의 교류에 관해 집중적으로 강연했다. 이번 강연은 르네상스 시기 유럽 사회에 드러난 교류의 모습들을 미술작품으로 이해하고 유럽에 관한 인문학적 지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2021 유럽 차세대 정책전문가 네트워크 참가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6월 14일(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영국 채텀하우스(RIIA)가 주최하는 유럽 차세대 정책전문가 네트워크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2015년부터 유럽 내 한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식 제고와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차세대 정책전문가를 발굴양성하고, 한국에 유의미한 해외 정책 연구 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EU연구소와 장모네 EU센터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의 유럽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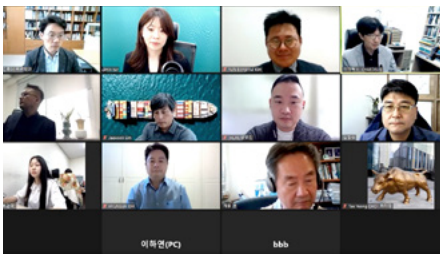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MOU 체결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6월 18일(금)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와 MOU를 체결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도내 거주 외국인이 서로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은 EU연구소가 처음이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향후 세계화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시대에 맞는 국제 교류 관련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통상학회-부경대 글로벌 물류경영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6월 24일(목) 한국무역통상학회, 부경대 글로벌 물류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 무역통상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후 변화 및 COVID-19 방역과 국제무역통상 정책'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리 대학 EU연구소는 제2세션 제1분과의 패널을 담당했다. 또한 한국무역통상학회 및 부경대 글로벌 물류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활발한 학술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랍어과

한국이슬람학회 춘계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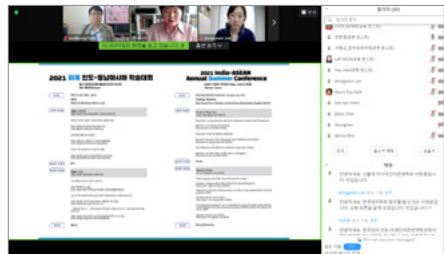
우리 대학 아랍어과 윤은경 교수는 6월 5일(토) 'UAE-한국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아랍에미리트-한국친선협회 후원으로 한국이슬람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Korea and the Arab-Islamic World: A New Partnership in the Post-COVID-19 Era'라는 주제로, 정치, 경제, 역사, 종교, 사회, 문화, 어학, 교육 분야로 나뉘어 총 21개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동남아연구소

인도연구소-한국태국학회-국제인도-아세안학회 공동 '2021 하계 인도-동남아시아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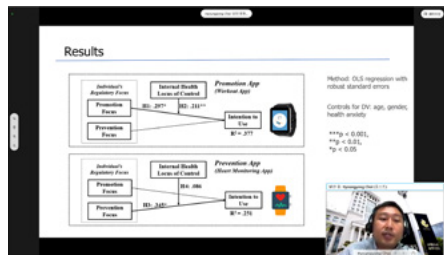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소장 박연관)는 6월 11일(금) 인도연구소, 한국태국학회, 국제인도·아세안학회와 공동으로 '2021 하계 인도-동남아시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미안마'와 '인도' 두 개의 패널로 나뉘어 미안마 쿠데타 상황을 진단하며 향후 전망과 인도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가 역량에 대한 발표와 논평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서는 미안마 사태가 국제적 이슈가 됨에 따라 미안마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구성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글로벌경영연구소

온라인 세미나

우리 대학 글로벌경영연구소(소장 류용규)는 6월 7일(월) 온라인(Webex)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영대학 최형용 교수가 'Intention to Use Smartwatch Health Application: Regulatory Fit and Locus of Control Perspective'를 주제로 연구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개인의 고유한 동기적 성향과 건강 관리에 대한 내부 신념이 스마트워치 promotion 앱과 prevention 앱 사용 의도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것이다.



환경학과

인턴 프로그램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등재

우리 대학 학부 과정 최은경(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정주안(환경학과), 김은혜(환경학과) 학생(이상 4학년)이 공동으로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논문이 국제학술지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지에 실렸다. 세 학생은 지난해 겨울부터 수질바이오모니터링 연구실 인턴으로 생체 독성 실험의 방법론에서 허점을 파악·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학부 과정 재학생의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것은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콜로퀴엄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주임 교수 오종진)는 7월 2일(금)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대학원생 논문 발표 콜로퀴엄을 개최했다. 이날 콜로퀴엄은 학위를 취득한 박수현 박사의 학위 논문(주 독일 터키 이주민의 정체성과 문화변용: 소셜미디어 이용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을 비롯해 9명의 대학원생이 터키,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관련 발표를 했고, 교수들의 조언과 토론이 진행됐다.



정치외교학과

경북대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양성 교육연구팀과 MOU 체결 및 하계학술대회 참가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 BK21 글로벌 민주주의와 인간안보 연구팀(팀장 이재목)은 7월 8일(목)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BK21 정치학적 소양을 갖춘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양성 교육연구팀(팀장 엄기홍)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정당학회가 주최한 '2021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가했다. 두 기관은 MOU를 체결하고 상호 학술 교류 증진 및 정치학의 중요 이슈와 연구방법론간의 체계적 연구 토대를 마련하는데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극지연구소-러시아연구소

제3차 러시아 북극연구 후속세대 양성 공동 워크숍

극지연구소(소장 최우익)와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7월 11일(일)~13일(화) 제주도에서 '제3차 러시아 북극연구 후속세대 양성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 변화, 에너지 매장으로 북극이 주목받는 가운데 후속세대 연구자들에게 러시아 북극 지역에 대한 학술적·실무적 지식을 전달하고, 그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러시아 북극 연구의 중요성과 주목할 만한 현상을 논의했다.



감각과 그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재원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 제29회 대한민국 기독교미술대전 입상

우리 대학 독일어통번역학과 이재원 교수가 제 29회 대한민국 기독교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입상작 '순례Ⅰ'과 '순례Ⅲ'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재원 교수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술에 대한 열정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최근 5년 동안 17회에 달하는 미술대전에 출전해 대중들에게 작품을 선보이면서 과감함과 섬세함이 공존하는 자신만의 독창적



박노근 경영학부 교수, 출간 도서 '2021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우리 대학 경영학부 박노근 교수가 저술한 「조직민주주의: 참여와 노동자협동조합(시대가치, 2020)」이 대한민국의학원이 실시하는 2021년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박노근 교수는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 책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소유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고 조직민주주의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영란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 한국여성철학회 회장 취임

우리 미네르바교양대학 장영란 교수가 한국여성철학회 회장에 선출됐다. 장영란 교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전공했고, 신화와 문화 및 고전 연구로 많은 저서와 논문을 출판했다. 1997년에 창립된 한국여성철학회는 한국 사회 문화 속의 여성 관련 주제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통해 양성 평등을 향한 지향적 실천의 이론적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임대근 융합인재학부 교수, 학교 법인 청강학원 이사 취임

우리 대학 융합인재학부 임대근 교수는 8월 25일(수)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 청강학원 이사로 취임했다. 임대근 교수는 우리 대학 대학원에서 중국영화를 주제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우리 대학 대만연구센터장,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부회장,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영화학회 연구지원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임대근 교수는 앞으로 4년간 청강학원 이사로 활동한다.



교수 출간

러시아연구소 표상웅 소장 및 최우익 교수, '2021년 한국에 대한 러시아 국민 인식 조사' 출판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 지부(소장 임철우) 지원으로 올 3월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를 최근 책으로 출판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2021년 러시아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러시아 국민은 지난 5년 동안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또한 한국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러시아 국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러시아 국민의 3분의 1은 한·러 수교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극동 지역 발전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www.r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어연수평가원

2021년 하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1년 하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8.02 ~ 12.17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12.28 ~ 01.25
야간과정	야간회화과정	3월, 8월	08.31 ~ 11.25
주말과정	주말특별과정	3월, 8월	08.28 ~ 12.11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 과정은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 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특별과정 등이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고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에니카손사,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들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교육 및 직업훈련부의 이름으로 Instituto Cervantes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이다.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Instituto Cervantes와 협정을 맺은 DELE 시

험 시행 기관으로 매년 5, 7, 11월 3차례 DELE 자격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 스페인어 강좌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협력해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을 개설해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학과정(A1~C2), DELE 시험대비반(A2~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구술대비반, 비즈니스/여행/축구 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지도한다. 모든 과정은 평일과 주말에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서울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 협업해 ‘통번역기초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 개설해 현재까지 350여 명이 수강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FLEX센터

2021년 FLEX 정기시험 일정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한국외대가 수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전문 외국어 능력 시험이다.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다.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평가받는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 25 ~ 03. 03	03. 28	04. 16	04. 30
2회	04. 29 ~ 05. 05	05. 30	06. 18	07. 02
3회	08. 05 ~ 08. 11	09. 05	09. 24	10. 08
4회	10. 21 ~ 10. 27	11. 21	12. 10	12. 24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시행

FLEX센터는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과 연계해 15개 특수외국어전문어학능력평가를 개발해 지난해 11월 14일(토) 2020년 제1회차 시험을 시행했으며, 지난 5월 8일(토) 2021년 제1회차 시험을 시행했다(2021년 상반기 1회차 시행함). 해당 시험은 ‘2020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시행계획(20. 3. 26)’을 근거로 개발한 특수외국어 어학 평가로서, 평가인증 체제의 활용을 확대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응시자는 2021년도 국비유학생 프로그램 관련 분야 지원시 해당 성적을 제출하고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TESOL전문교육원

2021학년도 전기(37기) 영어세미나(Practicum)

진행 및 수료

TESOL전문교육원은 지난 6월 21일(월)부터 7월 3일(토)까지 2주 동안 학기의 마지막 과정인 영어세미나를 진행했다. 영어세미나는 지난 1학기 동안 TESOL연구과정을 수강한 34명의 학생이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직접 교수님과 다른 학생 앞에서 시연하고 평가받는 마지막 평가 과정이다. 7명의 원어민 교수가 평가에 참여했고, 영어세미나 평가를 마지막으로 31명의 수료자와 3명의 이수자로 1학기를 마쳤다.

2022학년도 전기(39기) 교육생 일반/특별전형 모집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2022년 3월 2일 개강을 목표로 하는 2022학년도 전기 과정생 일반 및 특별전형 모집을 준비 중이다. 일반전형은 2021년 11월 1일(월)부터 1주일 동안 원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특별전형은 2022년 1월 3일(월) 원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14일(일) 특별전형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치르는데, 지원자 중 영문 자료 읽기와 영어 인터뷰 과정을 통과한 지원자가 2022년 전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021학년도 전기(37기) 온라인 수료식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지난 8월 21일(토) 오전 11시 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했다. 원래 수료식이 같은 날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TESOL전문교육원장님과 주임교수님을 비롯해 지난 1학기 동안 TESOL과정을 가르친 5분의 교수님이 참석해 수료생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20여 명의 수료생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모두의 수료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수료식은 원장님과 교수님들의 축하 인사, 한 학기 동안 반장으로 수고한 학생에 대한 공로상 수여, 최우수 성적을 받은 학생에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며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한국문화교육원

여름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인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여름학기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한국어 과정을 함께 개설해 해외 체류 중인 한국어 학습자를 유치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우리 교육원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45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 수업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2

여름학기 한국어문화교육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한국어문화교육원은 멘토링 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외대 학부생(멘토)에게 한국어문화교육원 연수생(멘티) 대상 멘토링(한국어 학습 및 한국문화 전

도) 기회를 제공해 학문적 지식은 물론 도덕적 인격을 겸비한 글로벌 융복합 인재로 양성하며, 한국어문화교육원 연수생에게는 캠퍼스 생활의 안정적 정착과 한국외대 학부 입학을 유도하고자 한다. 올해 봄학기부터 시작된 멘토링 봉사단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학부생 및 외국 연수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문의 02-2173-2262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2021년 삼성외국어생활관 글로벌인력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5월 10일(월)부터 7월 16일(금)까지 삼성외국어생활관 글로벌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그룹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교육 및 향후 유관 업무를 진행할 지역에 대한 지역이해 콘텐츠로 구성됐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은 소정의 평가를 통해 현지어 기반 비즈니스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헌업 부서로 돌아가 교육을 통해 축적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발휘했다.

2021년 한국전력공사 On-Board 프로그램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6~8월 한국전력공사 On-Board 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스페인어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전 임직원이 헌업에서 수업을 듣는 ‘주말 교육 세션’과 2주일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몰입형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교육생은 스페인 어학 콘텐츠를 소화하는 한편 수업 중 진행되는 다양한 이문화 콘텐츠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 지역 비즈니스 시 활용하게 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헌업으로 복귀해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를 진행했다.

2021년 삼성외국어생활관 주재원 과정 개최

국제사회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7월 19일(월)부터 9월 10일(금)까지 삼성외국어생활관 주재원 실무역량강화과정을 개최했다. 이 과정은 총 2개의 과정이 계열사별로 서로 연계돼 진행됐으며, 교육생은 향후 임지에 파견돼 주재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어학 및 지역학 지식을 습득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켰다. 해당 임

직원은 과정 종료시 소정의 어학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각지로 파견되어 주재 생활을 하게 된다.

2021년 신한 청년해외취업지원과정

(신한 Global Young Challenger) 개최

국제사회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7월 19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신한 청년해외취업지원과정(신한 Global Young Challenger)’을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은 총 4개 국가(베트남, 헝가리, 폴란드, 일본)에서의 해외 취업을 목표로 진행되며, 교육생은 해외 취업에 필요한 어학 및 지역학, 이문화 지식을 습득하고 취업 역량 강화, 직무 교육을 통해 준비된 해외 인재로 거듭나게 된다. 해당 교육생은 국내 과정 종료 이후 각 국가별 교육기관에서 현지 교육을 이수한 뒤 과정 참여기관(한국외대, 신한금융회화재단, KOTRA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취업에 도전하게 된다.

2021학년도 영재교육원 2학기 개학

영재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8월 28일(토) 9회차 정규과정 수업을 시작으로 2학기에 돌입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으로 구성된 영재교육원은 학생 학년에 따라 학급을 구분하는 한편 능력에 맞게 다양한 영어 및 수학 콘텐츠를 접하며 한국외대 영재교육원만의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소화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우수한 학생의 노력과 교감사진의 열정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12월 4일(토) 산출물 발표와 수료식을 통해 1년 교육과정을 마무리한다.

통번역센터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와 연계해 최정상급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매년 260여 건 이상 1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고, 번역은 매년 1,800건 이상 16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 <http://hufscit.com>

독일어 작문 연습 II

읽고 듣는 이해 중심의 외국어 교육에서 벗어나 말하고 쓸 수 있는 표현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다. 단순한 반복 암기가 아니라 언어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말과 독일어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언어의 표현과 기능을 깊이 있게 익히는 방법을 추구한다. 12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1 수준의 문법과 어휘 수준에서 직접 글을 쓰면서 독일어 작문에 익숙해질 수 있게 체계적 짜임새를 갖춘 점이 돋보인다.

신형욱, Anneliese Stern-Ko / 480면 / 46배판 / 23,000원

몽골어 표준 교재 A

몽골어를 배우려는 학습자가 특수외국어 관련 지역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겸비하고 실질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 수 있게 하는 몽골어 교육 입문서다. 도입부에서 현대 몽골어의 키릴 알파벳과 발음을 조음음성학적 측면에서 소개한다. 발음 연습을 포함해 전체 12개 과로 구성되며, 각과는 대화문, 어휘 및 표현, 문법 설명, 듣기 연습, 읽기 연습, 추가 어휘, 쓰기 연습, 말하기 연습, 단원 평가, 몽골의 민속문화 소개 등으로 이루어진다.

김기선, D. Ulziibat / 252면 / 46배판 / 23,000원

북극의 이해

북극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서이자 교재다.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 고민에서 비롯된 이 책은 북극의 정의에서 시작해 원주민, 영토, 경제, 국제 거버넌스,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소개한다. 제2부에서는 북극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는 러시아 북극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북극을 처음 접하는 시민과 대학생이 북극은 무엇이며, 그곳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우익, 라승도, 김봉철 / 304면 / 신국판 / 30,000원

컬처럴 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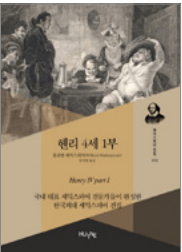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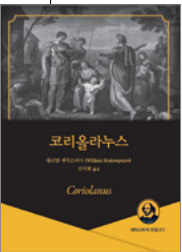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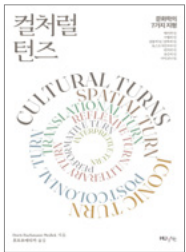
시각성 있는 7가지 주요 턴들을 중심으로 20세기 중반부터 변화를 거듭해온 문화학의 지평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한다. 이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기보다 각 턴들의 특성 및 차별성과 상호연관성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개별적 턴의 개념과 특성을 논하되 개별 학문에서의 활용 사례와 발전 현황을 각 장마다 일관성 있게 소개함으로써 분석 범주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실용적으로 제시한다.

Bachmann-Medick / 66면 / 신국판 / 30,000원

코리올라누스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의 셰익스피어 전집 중 17번째 도서다. 우리말로 뜻이 통하는 구어체로 번역되었고, 각주에 들어가야 할 부연 설명을 본문 대사 속에 녹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민중의 반란, 민중에 대한 귀족의 혐오감, 민중의 이중성과 가버뒀, 그런 민중의 속성을 이용하려는 세력, 그 세력과 귀족의 대립, 민중과 대립한 귀족의 몰락, 그 귀족이 취한 적과 의 동맹 등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톤을 유지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 272면 / 국판 / 10,000원



브레히트 영화 텍스트와 시나리오

세계 현대 연극사와 연극 이론의 필수 항목이 된 서사극, 생소화 이론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희곡 49편과 미완성 희곡 48편 이외에 2,300여 편에 이르는 시와 장편 소설, 다양한 이론서를 집필했다. 하지만 시나리오 작가로서 영화 제작에 직접 참여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은 그가 작업한 영화 텍스트를 집필 기간, 생성사, 작품 해설을 덧붙여 소개한 것으로, 그의 영화 세계를 새로이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 744면 / 신국판 / 25,500원

러시아 북극의 인문공간 II : 중앙부 편

러시아 북극 중앙부 편으로 우랄연방관구의 야말로네 네츠자치구, 한티만시자치구, 시베리아연방관구의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를 소개한다. 제1부에는 북극에 대해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한 저자들의 논문을 담았다. 제2부에는 중앙부 편에 속한 야말로네네츠, 한티만시, 크라스노야르스크 세 지역의 개관을 실었다. 제3부에는 자원과 환경에 초점을 둔 세 편의 칼럼을 실었다. 마지막 제4부에는 살레하르트, 노비우렌 고이, 크라스노야르스크 사진을 중심으로 북극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최우익, 라승도, 김봉철 / 274면 / 신국판 / 30,000원

헨리 4세 1부

왕위를 찬탈한 헨리 4세와 그의 아들 웨일즈 왕자 할의 정통성을 다룬다. 헨리 4세가 왕위를 찬탈한 후 죽을 때까지 헤어나오지 못한 피의 정통성 문제는 ‘과연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 물음과 더불어, 스스로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헨리 4세와 그의 아들이 정통성을 대체하기 위해 구사한 지배 전략과 연관지어진다. 그들의 지배 전략은 철저히 마키아벨리적이었으며, 이상적 군주가 되기보다 이상적 군주로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 208면 / 국판 / 10,000원

폴란드어 표준 교재 A2

폴란드어 표준 교재 A1의 속편이다. 초급 단계의 어휘 및 문법을 익히고 언어 구사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원하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만든 책으로, 일상 상황에서의 소통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비공식적 상황을 다룬 대화문 A와 공식적 상황을 다룬 대화문 B를 기본으로 해 어휘와 문법을 함께 익힐 수 있게 했다. 또한 다양한 연습 문제를 통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고루 향상할 수 있게 구성했다.

최성은(Estera Czój), Wioletta Hajduk-Gawron, Maria Michalunio / 300면 / 46배판 / 28,000원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용 스페인어 선집

이 책은 1986년 외무부 입부 이래 35년간 스페인과 중남미 각국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난 저자가 처음 스페인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직접 보고 들은 유용한 표현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펴낸 실용 스페인어 선집이다.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페인어 사용국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공한, 사신, 성명서, 기고문, 연설문의 모범 사례를 다루고 있다.

홍석화 / 376면 / 46배판 / 25,000원



2021년 후기 학위 수여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는 대신 김중렬 총장의 졸업 축하와 각 학부·학과 교수의 축하 등을 담은 학위 수여 영상을 제작해 지난 8월 28일(토) 대학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했다. 2021년 후기 학위 수여에서는 학사 549명, 석사 35명 모두 58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타의 모범이 된 학부·대학원 졸업생에게는 총장상, 성적우수상, 학장상, 대학원장상, 공로상, 모범상 등이 수여됐다.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입생 오리엔테이션

사이버한국외대는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신입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우리 대학의 새로운 가족이 된 학생을 환영하는 김중렬 총장의 입학 축하 영상과 학생의 대학 생활 설계 및 온라인 학습 환경 적응에 도움되는 학사 안내, 강의 수강 및 콘텐츠 안내, 대학 생활 안내 등 학교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 영상으로 구성해 제공했다.

'K-MOOC 운영사업' 묶음 강좌 신규 선정

사이버한국외대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사업' 묶음 강좌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클릭하며 배우는 진로중국어(FLEX-2급) 과정'은 '쉽게 들어가는 중국어 입문', '패턴으로 정복하는 중급 중국어', '통증을 알아듣는 진로 중국어', '통증을 물어보는 진로 중국어' 4개 강좌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중국어학부 이선희 교수, 장린자 교수 등이 개발할 예정이다.

'추억의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변환 이벤트' 진행

사이버한국외대는 6월부터 아날로그 기록물인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 영상 파일로 변환하는 '추억의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변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VTR 및 캠코더의 단종으로 보관만 하던 가정용 비디오테이프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로, 재학생과 졸업생, 동대문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학생 서비스 제공과 동대문구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의 일환으로 구성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2021-1학기 수강 후기 및 학습 노하우 공모' 진행

사이버한국외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1학기 수강 후기 및 학습 노하우 공모'를 6월 3일(수)~20일(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사이버대학교에서의 온라인 교육 경험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해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성인 학습자의 자기 개발 및 평생 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수기는 진솔성, 적합성, 체계성, 감동성 등 심사 기준에 맞게 평가하고, 4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일본어학부-도호쿠분교대학, 온라인 언어문화 교류 프로그램 실시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는 일본 도호쿠분교대학(東北文教大学)과 협력해 'JK-BC'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JK-BC'는 양 대학 학생을 1:1로 매칭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한 달간 신청자를 모집해 대학별 47명의 학생을 연결시켰고, 참여 학생은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각국의 언어를 활용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어학부, '2021 CUFS K-Culture 홍보 콘텐츠 공모전' 진행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가 주최한 '2021 제1회 CUFS K-Culture 홍보 콘텐츠 공모전'이 올해 처음 열렸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학생이 직접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홍보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해 출품하는 것이었다.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5개 부문에서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6월 19일(토)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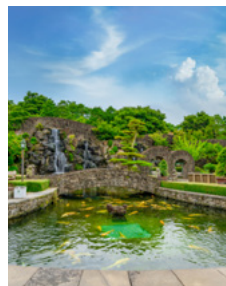
HUFS Alumni



조성준 동문,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인복지장관 임명
조성준(영어 57) 동문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인복지부(Ministry for Seniors and Accessibility) 장관에 유임됐다. 조 장관은 우리 대학 졸업 후 1967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1991년 토론토 시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2016년 캐나다에서 한인 최초로 주 의원이 됐으며, 8선 기록을 세웠다.



박원연 변호사,
민간통일운동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수여
우리 대학 영어과 박원연(영어 99, 통일법정책 연구회장,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 변호사) 동문이 지난 6월 14일(월) 민간통일운동 유공자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원연 동문은 2016년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를 설립해 통일 법제 정비 및 탈북민 소송 구조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럼·제안대회 등 민-관-학계를 거친 통일 연구와 토론 활동 등에서 두루 활약하면서 민간 통일 분야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제주 명소 '생각하는 정원'
Travelers' Choice Award 2021 수상
성주엽(일본어통번역 85) 동문이 운영하는 제주의 명소 '생각하는 정원(Spirited Garden)'이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트립어드바이저 선정 Travelers' Choice Award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Travelers' Choice는 전 세계 관광지 10%에만 수여되며, 올해 제주도에서는 생각하는 정원과 성산일출봉 두 곳에 수여됐다. 제주도 서남쪽 한경면에 위치한 생각하는 정원은 1만 7천여 평 대지에 7개의 소정원으로 구성해 다양한 나무, 수석 등이 전시돼 있으며, 곳곳에 폭포와 연못이 석조 건물과 조화를 이뤄 환상적이고 독창적인 대한민국의 자연의 맛을 감상할 수 있다.

김의성 동문, 협상 전문 교육·컨설팅 기업 스카워크(Scotwork) 대표 취임

김의성(베트남어 93) 동문이 세계 1위 협상 전문 교육 및 컨설팅 기업 스카워크 코리아 대표로 취임했다. 김 동문은 "스카워크는 수백 번 이상 제대로 협상해본 협상가들이 구성한 다양한 과정과 케이스를 통해 학습한 기술을 실제 협상에서 사용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컨설팅한다"고 전했다. 김의성 동문은 네슬레, 펄시 등 다국적 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사노피 컨슈머 헬스케어 한국대표, 베링거인겔하임 컨슈머 헬스케어 한국대표,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현정 동문, 국제 박사과정

Business and Human Rights 책임자로 활약

이현정(영어교육 95, 법전문 10) 동문이 9월 1일(수)부터 독일 엘랑겐, 뉘른베르크 대학교에서 국제 박사과정 프로그램인 Business and Human Rights 책임자로 근무하며 활발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이현정 동문은 동 대학교에서 인권법 석사를 취득한 이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에 관한 연구로 법학(헌법)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법학부에서 헌법 해석학, 차별금지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뉴욕동문회,
뉴저지에서 90~10학번대 젊은 동문 교류 모임

뉴욕동문회(회장 김중호, 독일어 89) 회장단은 지난 8월 12일(목) 미국 뉴저지의 한 카페에서 뉴욕·뉴저지에서 거주하는 90~10학번대의 젊은 동문들과 친목 모임을 가졌다. 동문회는 "93학번부터 18학번까지 총 20명의 동문이 참여한 이번 행사를 통해 젊은 동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히고 활발히 교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욕동문회, 9월 이사장배 추계골프대회 개최

뉴욕동문회는 지난 9월 26일(일) 미국 뉴저지 Sunset Valley Golf Course에서 이사장배 추계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뉴욕동문회는 국내·외 동문들의 교류를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대다수의 행사가 취소돼 많은 동문들이 이를 아쉬워했다. 이번 골프대회는 중단 이후 뉴욕동문회가 준비한 첫 공식 행사인 만큼 한국 왕복 항공권(회장 기부) 등 다양한 상품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6명의 미주 동문들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냈다.



HUFS Alumni

동문 출간

박철(제8·9대 총장, 스페인어 68)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읽기
(세창미디어)



심규호(중국어 78) 譯
홍안화수紅顏禍水:
미녀를 탐한 남자들의 종말
(중앙books)



이덕권(전자물리 82)
Smart Factory MES 개론
(파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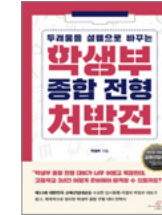
이윤옥(일본어 82)
인물로 보는 여성독립운동사
(얼레빗)



이호석(법학 91)
채용 올인원
[채용담당자와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전 가이드]
(중앙경제)



손원호(아랍어 99, 통번역(석) 07)
이토록 매혹적인 아랍이라니
(부키)



박정우(정치외교(석) 01)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처방전
(렛츠북)



류신(중어중문(박) 02)
강현상(중어중문(석) 02) 공저
스마트한 유학생을 위한
취업 한국어 비즈편 세트
(애니빅)



김상종(스페인어통번역 03)
온택트 파워포인트 속성과외
(황금부엉이)



신효정(중국어학전공 09)
일단해 중국어 학습지
(동양북스)



강민수(폴란드어 10)
전심전력
(북파트)

Alumni News

HUFS Alumni

2021. 06. 01. ~ 2021. 08. 31.

정부기관

김주영	정치외교91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김정훈	컴퓨터공학87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여주경찰서장
조우종	철학87	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이원상	러시아학89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김성수	네덜란드어89	국방부 예비전력관리 군무사무관
이종현	폴란드어87	국세청 조사·국 조사관리과장
오창석	스페인어84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유의정	네덜란드어89	국회사무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김석	독일어87	방위사업청 무인계약팀장
강수산나	영어87	법무부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용자	중국94	법무부 영월지청장
김재남	법학96	법무부 여성가족부 파견
서인선	법학92	법무부 대검찰청 대변인
서창원	법학90	법무부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정종화	법학85	법무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김인숙	독일어89	서울시 보행정책과장
최용철	형기리어90	소방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오동일	영어84	외교부 駐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조성준	영어57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인복지장관

기타

김관미	아랍어통번역88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전략팀장
장찬욱	일본어84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본부장
김성현	아랍어97	한국조폐공사 귀금속사업·인증팀장
조광식	경영금융(석)08	한국투자공사(KIC) 감사실장
박한규	독일어87	한국환경공단 기획조정처장

김재식	영어교육(석) 17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영어교사
최규학	베트남어80	수림문화재단 이사장
이영로	경영(박)04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박용진	경영 87	한국콘텐츠진흥원 태국지사장

언론

이종근	스페인어84	경향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주간
장은교	경영90	경향신문 편집국 소통·젠더데스크
한대광	정치외교83	경향신문 편집국 전국사회부장
홍진수	정치외교94	경향신문 편집국 산업부장
이태희	국제통상90	부신제일경제 대표이사
이예스더	스페인어86	아리랑TV 콘텐츠유통센터장
장상진	정치외교96	조선일보사 조선NS 대표
김용만	법학 07	채널A 경영전략실 1theC스쿼드 CD

정치

최만호	법학76	국민의힘 세종시 당 위원장
-----	------	----------------

금융

조경연	경영95	수협중앙회준법감시실 소비자보호단장
김건우	일본어90	우리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김은경	경영04	우리은행 증미역지점 지점장
박지영	노어96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배연수	행정90	우리은행 중소기업고객부 본부부서장
신상원	영어83	우리은행 주안공단지점 지점장
이규영	경제89	우리은행 광명지점 지점장
이승원	포르투갈어91	우리은행 유럽우리은행 지점장
정인현	경영91	우리은행 대흥역지점 지점장
하진	아랍어93	우리은행 WVB캄보디아 지점장
홍정표	국제통상83	한화저축은행 대표이사
강경모	정치외교90	IBK기업은행 Pre-CEO
김원유	국제경영88	IBK기업은행 길동 지점장
김원태	행정88	IBK기업은행 논현역 지점장
조일형	경제85	IBK기업은행 등촌역 지점장
조혜성	스페인어통번역91	IBK기업은행 오창 기업성장지점장

기업

최병준	스페인어90	메쉬코리아 운영본부장
-----	--------	-------------

Donation News

HUFS Donation



〈HUFS 라이프 아카데미〉, 4년간 5억5천만원 기탁으로 장학생 182명 배출

〈동원그룹 동원육영재단(이사장 김재철)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기탁해 2021년 현재까지 총 5억5천8백만원을 우리 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해 희사했다. 〈HUFS 라이프 아카데미〉(운영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가정준 교수)는 〈동원그룹 동원육영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학내 독서 증진 교양 교과목 TRTL(Today's Reader Tomorrow's Leader)과 연계한 전인교육 프로그램이다. '사람, 세상, 미래'를 테마로 하는 다채로운 배움과 실천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 능력을 강조한다.

2018년부터 서울과 글로벌 양 캠퍼스를 대상으로 매년 40~50명의 재학생을 선발해 테마특강·독서토론·글쓰기·진로설계·문화체험·자원봉사 등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지성과 감성을 증진하고, 소통과 공감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의 캠퍼스 라이프를 보다 풍요롭게 한다. 선배 세대의 경험과 연륜, 후배 세대의 열정과 패기가 교차하는 배움터로 자리잡은 〈HUFS 라이프 아카데미〉는 학내 비교과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동원그룹은 동원그룹리더십장학재단과 동원육영재단을 통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11억 3천만 원 이상의 장학기금을 기탁, 외대의 미래 인재 육성과 전인적 글로벌 리더십 교육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www.hufslifeacademy.com



KD운송그룹, 글로벌캠퍼스 환경개선 기금 5천만원 기탁

KD운송그룹(사장 허상준)이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환경개선 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7월 7일(수)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탁식 행사에서 신정환 글로벌캠퍼스 부총장은 "KD운송그룹은 국내 대표적인 운송기업으로 사람과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과 상호 협력적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KD운송그룹 허상준 사장은 "오래된 술이 향기가 좋은 것처럼 한국외대와 KD운송그룹의 40년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의 발전을 처음부터 함께해온 KD운송그룹과의 귀한 인연이 지속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환경개선 기금 기탁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Donation News

성명	소속	약정총액(원)
김성현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89	10,000,000
김용정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95	100,000
서정규	상경대학 경제학과 82	1,000,000
송위지	경영대학 경영학과 82	500,000
양연우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97	1,200,000
유현기	인문대학 철학과 89	100,000
윤서영	사범대학 프랑수아교육과 12	500,000
이동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01	100,000
이영우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68	10,000,000
고태진	외대교수	100,000
김봉철	외대교수	83,845,500
김유강	외대교수	2,200,000
윤경원	외대교수	600,000
윤현숙	외대교수	300,000
이창현	외대교수	1,500,000
재성훈	외대교수	1,000,000
최종찬	외대교수	100,000
김현택	명예교수	1,700,000
(재)외대동문장학회	동문단체	4,500,000
G-COE 선프랜시스코 총원우회	동문단체	5,656,500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2021 스포츠마케팅원론 수강생	교내단체	986,380
(주)경기고속	외대사랑후원업소	25,000,000
(주)대원고속	외대사랑후원업소	25,000,000
(주)북코스모스	기타(기업)	1,000,000
(주)세이브	기타(기업)	6,000,000
(주)썬애드	기타(기업)	5,400,000
(주)이엔케이코리아	기타(기업)	3,800,000
(주)제마나이스프리트	기타(기업)	1,000,000
(주)뎌코	기타(기업)	500,000
낙원새마을금고	기타(기업)	3,360,500
세무사조성자사무소	기타(기업)	1,000,000
씨제이[제일제당](주)	기타(기업)	10,000,000
충무수산	기타(기업)	3,000,000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기타(기업)	4,500,000
힐리코리아(주)	기타(기업)	1,182,800

성명	소속	약정총액(원)
(재)가송재단	기타(단체)	10,000,000
(재)조준장학재단	기타(단체)	1,520,500
(재)케이티그룹화랑나눔재단	기타(단체)	10,675,000
(재)법성문화재단	기타(단체)	3,860,500
(재)흥한재단	기타(단체)	12,000,000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기타(단체)	13,360,500
과천시애향장학회	기타(단체)	6,000,000
남정장학재단	기타(단체)	12,500,000
두산연강재단	기타(단체)	10,081,500
롯데장학재단	기타(단체)	63,360,500
미래의동반자재단	기타(단체)	2,360,500
미래인재육성재단	기타(단체)	10,096,000
백운장학재단	기타(단체)	5,000,000
서울장학재단	기타(단체)	43,000,000
성육문화재단	기타(단체)	3,360,500
성음문화재단	기타(단체)	1,000,000
아산사회복지재단	기타(단체)	11,776,500
이스테파노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
일주학술문화재단	기타(단체)	7,397,000
재단법인 김준기재단	기타(단체)	13,442,000
재단법인 문숙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
재단법인 연당장학회	기타(단체)	2,000,000
재단법인 유경재단	기타(단체)	3,000,000
재단법인 인촌	기타(단체)	1,500,000
재단법인 해강대성장학회	기타(단체)	2,000,000
재단법인광주시민장학회	기타(단체)	3,000,000
정수장학회	기타(단체)	14,795,000
하림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
하영호장학재단	기타(단체)	3,300,000
한국지도자육성재단	기타(단체)	9,480,500
해성문화재단	기타(단체)	10,114,500
현대차정릉구재단	기타(단체)	5,160,500
현마육영재단	기타(단체)	29,437,000
형애장학회	기타(단체)	6,721,000

간편한 약정을 원하시면 발전협력팀(02-2173-27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 학교발전기금 약정서

기 부 인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 자택			
		☐ 직장			
	인 적 사 항	근무처		부서/직위	
		연락처		E-mail	
구 분		동 문	학과명	입학 연도	년
		비동문			
기 부 지 정 분 야	학교 발전기금		☐ 학교에 용도를 위임합니다 ☐ 교육 ☐ 연구 ☐ 시설 (건축 및 기자재)		
	장학금		☐ 장학금 : 대학 과 또는 장학명		
	학과, 연구소 발전기금 외		☐ 학교발전 : 대학 과(부) ☐ 기타 ()		
약정(기부) 총액		☐ 현금 원		☐ 현물	
납부 기간 및 방법	일시납		☐ 1회 완납 (금 원) 년 월 일 납부(예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05-031630 한국외국어대학교		
	분납 자등이체		☐ 월납부액 (원, 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이체일 : ☐ 15일 ☐ 말일		
	분납 급여공제(교직원용)		☐ 월납부액 (원, 회) 사 번 ()		
기부 권유자		성명 : 연락처 :		*기재하신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위와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_____ (서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약정(기부) 방법 안내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팩스	02-2173-2785 이메일 hufsfund@hufs.ac.kr
	우편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협력팀
	전화	02-2173-2756

※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반드시 V(체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금관리 용도로만 사용되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기부 약정에 입력되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는 발전기금의 약정 및 기부처리,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예우, 기부내역 관리, 기부행사 안내 및 홍보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택주소 또는 직장주소), 연락처(지택 전화번호 또는 직장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자동이체 시), 사번(급여공제 시)
- 선택항목: 위 필수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부자 정보에 대한 기록 보존이 필요한 시기까지 보관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기부금 약정 이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부자 예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부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항목 미 작성 시 기부처리 불가)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거부입력을 위해 고위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거부행사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우리 대학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지,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 발송 및 연락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성명, 학과, 학번,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발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으로서 개교 67주년을 맞이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취 거부 연락 주실 곳
발전협력팀 전화 : (02)2173-2756 이메일 : hufs5@hufs.ac.kr

물릴하는 곳

접는 선



접는 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AI시대를 밝히는 글로벌 융합전문가 HUFS 글로벌캠퍼스에서 키웁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는
AI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위해
SW 산업 현장 체험학습과 SW 전공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의 핵심 인재가 될 글로벌 융합전문가를 키웁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